



금강산

9

주제 103(2014)
루체 제301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14 ISSN 1727-9062

차례

《우리 앞날 밝아》	3
인민의 편지, 청도자의 회답	6
인민을 위한 성질, 그 활동을 드고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차광수가 찾은 길	8
불변의 진로를 밝히는 가치	10
길이 빛날 업적	11
수 기	
잊을수 없는 모습	12
수 기	
태양은 마음속에 찬연하고 우정은 천하를 밝힌다	13
철강재생산에 더 큰 박차를	16
록색에 네르기 제품 생산기지	18
송도원의 파도소리	20
수 기	
복속에서 복을 모르며	25
동포의 지성이 깃든 구강병예방원	26
그들의 꿈과 희망	28
미곡벌을 사랑하는 청년들	30
맑게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32
언제나 기다리는 관광지들	34
천년강국의 시조통이 전하는 이야기	36
조국의 품에 안겨	
봉산탈춤을 사랑하는 화가	38
고향소식	
대지에 넘치는 기쁨	40



우리 어버이

정서적으로 ($\text{♩} = 64$)

작사 박경심
작곡 안정호

A^b B^b_m E^b₇ A^b

1. 정 - 깊은 그 미소에 눈 - 굽 - 은 젖 - 고
파 - 뜻 한 그 음성에 마 - 음 - 은 젖 네
꿈 - 에 - 도 - 믿 고 사는 운 명의 - 하 - 늘
자 - 애 - 론 - 원 수님은 우 - 리 - 어 베 이

D^b A^b E^b₇ A^b A^b₇

2. 해빛을 향해 펼친 천만잎새처럼
인민은 정에 끌려 그이 따르네
마음속 그늘없이 비치는 태양
자애론 원수님은 우리 어버이

3. 사랑하는 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그 헌신이 그이의 행복
세상에 오직 한분 민족의 은인
자애론 원수님은 우리 어버이

편지

다키 만날 날을 기대하여 42

인상기

거례의 어버이 43

마음속 충동 43



고국방문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44

《조개구이맛 즐다》 46

한 편집물에 깃든 사연 47

끌맞지 못한 이야기 48



민족의 향기

생활의 윤택함을 자아내는 옻칠공예 49

우리 나라의 갑문들 50

조선의 특산

송이버섯 52

사화

을두지의 지혜 52

야화

잃어버린 화살과 모자 52

고조선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1) 54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끝장나야 한다 55

뿌리/길은 침략정책 56

상식

환자에게 알맞는 과일 39

조선속담 (교활섬) 28

유모아

국왕과 닭말 16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된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 참가자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5월]

《우리 앞날 밝다》

지난 6월 공훈국가합창단은 자강도순회공연의 길에 올랐다. 그들이 부른 노래들 가운데에는 남성 합창 《우리 앞날 밝다》도 있었다.

...

나가는 사회주의 우리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하리
찬란한 향도의 태양비쳐
우리 앞날 밝다

자강땅의 로동계급은 이 노래를 함께 따라부르며 보람차고 궁지높은 삶을 누려가는 무한한 행복감에 젖어있었다.

오늘 자강땅의 로동계급만이 아닌 조국의 인민들은 가리울수도 없고 흥내낼수도 없는 조선식 사회주의, 인민들 모두가 만복을 누리며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해가고 있는 그 멋을 노래에 담아 부르

고있다.

둘러보면 마식령, 세포지구와 같이 깊은 잠에 들어있던 대지가 세계문명지대로 변모되고 미림과 문수지구와 같이 행복의 말발굽소리, 기쁨의 물소리가 울려나오는 곳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조국의 모습이 가슴에 뜨겁게 안겨온다.

어디 그뿐인가.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의 혜택 속에 학생소년들은 조선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있고 로동의 기쁨 넘쳐나는 일터들마다에서는 근로하는 인민의 끝없는 혌신의 땀방울이 구슬처럼 빛나고 있다. 하나를 건설해도 먼 후날에 손색이 없을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세우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하나의 과학기술연구과제를 완성해도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먼저 반영하고 있는 조국인민들이다.

공화국의 역사와 거슬러보면 나라가 세워진 때로부터 수십여년, 그 나날 인민은 자주적이며 창



창전거리의 일부

조적인 삶을 누리며 그토록 자랑스럽고 미더웁게 성장하였다.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국인민은 백두산 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라고 목청껏 노래부르며 공화국의 창건자 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감사의 인사,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때 그들의 가슴속에 고쾌친것은 식민지노예로부터 자주적인민이 되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존엄높은 삶을 누릴수 있게 하여주었으며 빼앗긴 나라를 찾아 민족재생의 봄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잘 살 날이 온다는 확고한 믿음이였다.

하기에 그들은 그이의 령도따라 새 조국건설의 마치소리 높이 울려왔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단매에 꺾어놓았을뿐 아니라 전후 재더미를 털고 사회주의의 봉우리를 향해 힘차게 질주하여왔다.

수령님품에서 자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제국주의렬강들의 온갖 도전을 파감히 물리치고 인민의 행복이고 운명인 조국을 수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였다. 조선의 위대한 힘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오늘도 친함이 없다.

조국인민이 백두산절세위인들과 더불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민족의 앞길을 밝히는 광휘로운 태양이시라는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 12월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였다는 비보가 온 나라에 전해지는 그 순간 조국은, 인민은 태양이 금시 꺼진듯 한 느낌을 받았다.

지구의 자전이 멎고 땅과 바다가 바뀌는듯 하였고 태양이 빛을 잃은듯 눈앞이 깜깜해지는 비통한 상실의 아픔속에서 조국과 인민을 일으켜세운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

진정 천만군민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눈물을 흘리였고 그이께서 계시여 우리의 앞날은 변함없이 창창하다는 확신으로 가슴을 들먹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조선로동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공장, 기업 소들을 찾아주시며 창조와 비약의 나래



대중승마봉사기지로 꾸려진 미림승마구락부

를 달아주시였을뿐아니라 가시는 걸음마다 로동자 궁전, 아이들의 궁전을 세워주실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 모든것을 현실로 꽂아주시기 위해 심혈을 다 바쳐가시였다. 평양애육원과 평양시육아원을 찾으시여서는 어린이들을 따뜻한 한품에 안아주시고 류경구강병원에 가시여서는 의사들에게 로인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도록 당부하신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뜨거운 은정에 가슴적시며 인민은 그이의 령도따라 달리고 뛰는것도 성차지 않아 한 걸음에 천리를 낸다는 준마에 조선의 시간을 태웠다.

이제는 10년이면 장산이 변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속에 조국의 면모가 달라지고 있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희한하게 전변된 서해의 외진 섬마을들에 이르기까지 전변의 새 모습은 조국땅 그 어디에나 펼쳐져있다. 사회주의문명을 맛볼수 있게 하는 마식령스키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룹라인민유원지며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을 비롯하여 내 조국에 펼쳐진 선경들에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한껏 터져나오고있다.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솟구쳐올라간 인공지구

위성이며 더 높은 단계에로 치달아오른 기계공업을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세계와 키든움을 하며 솟구쳐오르고있다.

조국인민이 강성부홍할 밝은 래일을 창조하며 흘리는 땀방울은 그 어떤 값비싼 진주보석에도 정녕 비기지 못할것이다.

마식령스키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지금 멋들어진 마식령스키장에서 조국인민만이 아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문명의 단맛을 보고있다.

말도 넘기 힘들어 쉬여가는 령이라고 하여 마식령이라 불리우는 이곳은 두해전까지만 하여도 수십년자란 나무들이 빼빼이 들어찬 수림이였다.

인민군군인들은 스키장건설을 위해 한겨울의 폭설과 삼복철의 찌는듯 한 무더위, 장마철의 폭우를 웃으며 헤치면서 엄혹한 자연파의 투쟁에서 위훈을 세기였다.

조건은 매우 불리하였다.

그러나 군인건설자들은 허리까지 치는 눈을 헤치며 아름드리 나무들을 뿌리채 뽑아던지고 천연 바위들을 들어내며 수십만m³의 면적에 달하는 산발들에 10여개의 스키주로들을 봇으로 쭉쭉 그어놓은듯 번듯하게 닦아놓았으며 특색있는 건축미를 안고있는 호텔과 휴식각을 비롯한 봉사건



건축과학기술인재로 준비해나가고있는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들

물들도 일떠세웠다.

우리 조국을 찾아오는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세계적수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이 가는 곳마다 일떠서고 령도자의 뜻을 받아들여 무에서 유를 창조해나가는 조선인민을 당할자는 세상에 없다고 격찬하고있다.

우리 앞날 밝다!

이는 단순히 남들에게 우리를 자랑하자고 내건 구호나 노래가 아니다.

이것은 래일을 확신하는 승리자들만이 부를수

있는 노래이다.

하다면 래일은 무엇으로 아름다운가.

무릇 그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의 모습에 먼저 비낀다고 한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 하시며 전국의 경치좋은 곳마다에 소년궁전과 야영소를 세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파 꼭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끝없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조국의 후대관이 비낀 멋쟁이건축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꾸려주시였으며 준공식날에는 학생소년들과 함께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야영소의 밤하늘에 터져오르는 축포도 보아주시였다.

선군조선의 희망찬 미래와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꽂아워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이 있어 래일에는 희한하고 눈부신 새 모습을 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이 우리 후대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것이다.

눈부신 조국의 래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흐뭇해진다.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국의 래일은 위성과학자거리와 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미래과학자거리, 쑥섬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 등을 통해서도 환히 그려볼수 있다.

조국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도전에도 끄떡없이 밝은 래일을 마음껏 꿈꿀것이며 그 꿈을 현실로 꽂아워나갈것이다.

태양의 눈부신 빛발이 있어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듯이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본사기자 연 옥

웃음소리 넘쳐나는 문수물놀이장



인민의 편지, 경도자의 회답

얼마전 우리는 한통의 편지를 보게 되었다. 그 편지의 첫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발이 씌여져 있었다.

《숨기고 싶었을 집안의 과거를 스스럼없이 터놓고 당을 믿고 따르는 좋은 청년입니다

김정은

2013 4 10》

사연인즉 지난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철도성 청년 돌격대려단 3대대 참모장 박성민의 편지를 받으시고 회답서 한을 보내신 것이였다. 박성민의 편지에는 그가 자기 집안이나 나라 앞에 죄를 지은 것으로 하여 사람들 앞에 머리를 들고 나서지 못한 일이며 그러한 자기를 어머니 심정으로 품에 안아 지휘성원으로까지 키워준 조선로동당에 대한 고마움이 적혀 있었다.

흔히 편지는 시간상 또는 거리상 관계로 직접 말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사와 소식, 요구를 적어서 전달하는 글이다. 때로 사람들은 선뜻 터놓기 어려운 마음 속 생각도 편지에 담아 전한다.

평범한 한 공민의 편지와 경도자의 회답, 이것은 공화국에서 경도자와 인민이 맺고 있는 류다른 관계, 혈연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60여년 세월 각계층 인민들이 자기 수령, 자기 경도자에게 편지를 올리고 회답서 한을 받았다.

최근년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편지를 올리였다. 거기에는 사람

들의 축복 속에 영예군인(조국을 보위하는 군사복무의 길에서 부상당한 사람)과 결혼한 기쁨도 실려 있고 숨겼던 잘못, 서슴던 허물도 담겨져 있다. 그런가 하면 로동자, 농민을 일군으로, 영웅으로 키워주고 내세워 주는 공화국의 품에 대한 고마움의 토로도 있다.

바로 그 가지 가지의 사연을 담은 하많은 편지들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진정을 읽으시고 바쁘신 속에서도 하나

하나 회답의 글을 쓰신다. 지난해 4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는 그이께서 그해 2월 13일 인민들이 올린 편지들을 보시고 7건의 친필을, 2월 27일에는 8건의 친필을 보내신 사진과 글이 실리였다.

그 가운데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서 수술을 받고 두번 다시 새 생명을 받아안았다는 함흥시 흥남구역 최서향녀인의 편지에 쓰신 앞으로 건강 관리를 잘하십시오라는 친필이 있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 참가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담아 올린 평양우편국 운수직장 고봉춘의 편지를 보시고 뜻이 깊은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를 써주신 친필도 있다.

그이의 회답서 한은 각계층 인민들의 사업 성과와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값높은 평가, 모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 데 대한 당부,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 일수록 더욱

따뜻이 품에 안아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뜨거운 인정미 등이 집대성된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이다. 그이의 회답서 한은 대상의 심리와 특성에 맞게 섬세하고 통속적이며 친근한 표현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가슴 속에 보다 따뜻하게 전달되고 있다. 때로 어린 이들의 편지를 보시고서는 『리향아』, 『준혁아』라고 다정히 부르시며 백점, 만점이라고 치하해주기도 하시고 손수 빨간 별까지 그려주기도 하시는 그이이시다.

마음 속 구김새나 꾸밈도 없이 자기들의 진정을 그대로 아뢰이는 인민들의 편지, 그에 사랑과 믿음이 어린 친필서한을 보내시는 원수님의 회답은 그대로 공화국에서 경도자와 인민은 한가정의 혈연적 관계,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동지적 관계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지난해 적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섬초소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오래도록 뵈옵고 싶어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이 허리치는 바다 물 속에 뛰여 들어 그이를 바래우던 화폭, 올해 그이께서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그이의 팔을 꼭 끼고 저마다 걱정 속에 사진들을 찍은 인민들의 모습 등은 그 혼연 일체의 관계가 얼마나 뜨겁고 공고한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인민의 마음 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원수님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인민을 위한 정권, 그 침묵을 드고

- 평양시 락랑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홍영우와 본사기자이 대담 -

기자: 공화국은 창건(1948. 9. 9.)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아오고 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인민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부위원장: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마음껏 행사하며 살아나가려는 것은 인민의 요구이며 지향이다. 인민의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실현시켜주는 나라는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마련이다.

공화국은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나라이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받아들여로 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하며 광범한 대중을 국가 관리와 사회 정치 생활에 적극 참가시켜 그들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 정권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례를 듣다면 공화국에서는 지방 주권 기관으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 기관이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범한 노동자를 비롯하여 농민, 지식인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거나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여 나

라의 정사를론하고 있는 현실은 인민이 주인된 우리 사회제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올해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힘 있게 표시한 계기로 되었다.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돈과 권력에 의해 결정되고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기자: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 속에서 누구나 다 참된 삶을 누려가고 있다. 이것은 인민이 주인된 공화국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위원장: 그렇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한 생활

은 공화국의 인민적 시책을 놓고 보아도 알 수 있다.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인민은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 인민은 수십년 동안 무료 교육제, 무상 치료제의 혜택 속에 자식들을 공부 시킬 걱정, 병이 나면 치료 받을 걱정을 모르고 살아왔다.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의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당과 공화국의 인민적 시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이 련이어 펼쳐지고 유족 한 물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인민적 시책이 더욱 철저히 구현되고 있는데서 우리 인민은 더욱 풍족하고 행복해질 앞날을 확신 있게 내다보고 있다.

기자: 공화국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다.

부위원장: 우리 락랑구역인민위원회는 구역 안의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풀어주는 인민 정권 기관이다.

우리 구역은 평양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역은 시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축에 속하고 평양으로 들어오는 남쪽 관문이다.

이렇게 볼 때 지난 기간 구역의 편의봉사 시설들과 교육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응당한 수준에 따라 서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구역에서는 학교 건설을 건설 계획에 반영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편의봉사 건물들도 개건하거나 새롭게 건설하였다.

그리고 평양시를 선군 문화의 중심지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구역의 여러 곳에 화초 공원을 비롯한 공원들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건설해놓았다.

뿐만 아니라 구역 관내 인민들의 생활 상황에 풀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돌려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민들의 물 문제를 더 원만히 풀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식량, 멜็ด 감 등 생활 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빛내여가는 인민 정권 기관의 일군으로서 앞으로도 인민을 위한 참된 복무자로 힘껏 일해 나갈 결심이다.



차광수가 찾은 길

길림시절을 회상할 때면 잊을수 없는 얼굴들이 수없이 떠오르곤 한다. 그 얼굴들의 전렬에는 항상 차광수가 서 있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27년 봄이였다.

나에게 차광수를 처음으로 소개해준 사람은 최창걸이다.

최창걸은 화성의숙이 폐교된 다음 정의부본거지의 하나였던 류하현의 삼원포에서 독립군생활을 하였다.

하루는 그의 련락원이 쪽지를 가지고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그 쪽지에는 이제 차광수란 사람이 길림에 가니 만나보라는 것과 자기도 인차 길림에 한번 오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며칠후 내가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올 때였다. 목이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 한 경쟁이 청년이 불쑥 내앞에 나타나 밀도 끌도 없이 최창걸이란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안다고 대답하자 그는 무작정 손부터 내밀었다. 그가 바로 차광수였다.

그날 차광수는 될수록 자기는 말을 적게 하면서 나한테 말을 많이 시켰다. 그러다보니 그는 묻고 나는 대답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그는 몹시 무뚝뚝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훌쩍 사라졌다.

얼마후 최창걸이 약속대로 길림에 왔다. 길림에는 정의부

의 지도부가 있었고 그들을 호위하는 중앙호위대가 신개문밖에 막사를 정하고 있었다. 최창걸은 자기네 중대에서 중앙호위대에 련락할 일이 생기자 그것을 평계로 길림에 찾아온 것이다.

나는 최창걸에게 차광수와의 담화내용도 이야기해주고 그에게서 받은 첫인상도 실로하면서 그가 아직 속을 주는 것 같지 않더라는 말도 하였다.

최창걸은 자기가 처음 그를 만날 때에도 역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지내놓고 보면 사람은 진국이라고 하였다.

하루는 최창걸이 속해 있는 독립군중대장한테 류수하자학교에 공산주의선전을 하는 교원이 있다는 사실이 통보되었다.

중대장은 그를 당장 체포해 오라고 하였다.

최창걸은 공산주의라면 덮어놓고 이단시하는 독립군한테 차광수가 혹시 행패라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기의 영향하에 있는 대원들에게 단단히 파업을 주어보냈다.

최창걸의 파업을 받은 독립군대원들은 차광수가 하숙하고 있는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들이 받은 저녁상이 몹시 초라했던 모양이다. 강조밥 한술가락을 물에 마니 죽은 좀 별레와 쌀껍데기가 둥둥 떠올랐다고 한다.

돌아다니면서 대접을 받는데 습관된 독립군대원들은 이것도

밥인가, 독립군을 대하는 본때가 덜돼먹었다고 울렸다.

그때 차광수가 집주인을 두둔해나섰다.

《이 집 주인들은 며칠째 날 알구경도 못하고 푸성귀로 끼니를 에우고있소. 독립군어른들이 왔다고 그래도 성의를 다하느라 지주집에 가서 쌀을 꾸어다 밥을 지었던 말이요. 잘못을 따지면 나쁜 쌀을 준 지주한테 있지 정성껏 밥을 지어 대접한 주인한테야 무슨 죄가 있겠소.》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치던 독립군대원들도 차광수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 리치에 맞는 말이여서 트집을 잡을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독립군도 몰라본다고 우둘렁거리던 그들이 나중에는 차광수의 인품에 끌리여 체포는커녕 빈손으로 돌아가서 중대장에게 차광수란 사람은 공산당은 아니고 대단한 애국자라고 보고하였다.

최창걸자신도 차광수를 만나보았는데 파연 사귈만하더라는 것이였다. 원래 최창걸은 자기가 일단 좋다고 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지하고 친근하였다.

나는 최창걸의 눈에 좋게 보였으면 차광수가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믿었다.

최창걸이 돌아간 다음 한주 일쯤 있다가 불쑥 차광수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한동안 길

림바람을 좀 쐬었노라고 하면서 아닌밤중에 홍두깨라는 식으로 나에게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었다.

장개석이 중국공산당을 배신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공산주의 운동내부에서는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가 격렬하게론 의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진정한 공산주의자와 기회주의자를 가르는 하나의 시금석처럼 되어있었다. 그래서 차광수도 만나자 바람으로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물은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장개석의 변절로 중국혁명에서는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장개석이 배신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중국혁명이 보다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을것이며 따라서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도 지금처럼 날카롭게 제기되지 않았을것이라고 하면서 차광수는 몹시 분해하였다.

1920년대 후반기부터 중국혁명은 혁명전쟁의 방법으로 전국의 반동통치를 전복하는데로 나아갔다. 제국주의타도, 군벌타도, 봉건세력숙청이라는 구호밑에 1926년 여름부터 북벌을 개시한 국민혁명군은 호남, 호북, 강서, 복진 등 여러 성들을 장악하고 양자강류역의 주요도시들을 련이어 점령하면 서 일제의 조종밑에 화북지방 까지 차지하고 있던 장작림반동군벌들에게 드센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상해의 로동계급은 세차례에 걸치는 영웅적봉기로 도시를 장악하였으며 무한과 구강의 인민들은 북벌혁명의 승리에 고무되어 영제국주의자들로부터 조계

지를 탈환하였다.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북벌군의 진공에 호응하였고 농민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대중적으로 북벌전쟁에 참전하였다.

이런 때에 장개석은 국공합작을 파괴하고 혁명을 배신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는 혁명의 지도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음모적인 방법으로 국민당지도부와 정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막후교섭을 맹렬하게 벌리였다.

장개석이 이런 배신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중국혁명이 보다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을것이며 따라서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도 지금처럼 날카롭게 제기되지 않았을것이라고 하면서 차광수는 몹시 분해하였다.

광동혁명근거지가 공고화되고 북벌혁명이 일정에 오르자 장개석은 곧 군사독재를 수립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파시스트적인 태도로 전에 이행하였다. 그는 1926년 3월에 중산함사건을 조작한 후 그것을 계기로 황포군관학교와 국민혁명군 1군에서 주은래를 비롯한 모든 공산당원들을 몰아냈고 1927년 3월에는 손중산의 3대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당 남창시당부와 구강시당부를 무력으로 해산하였다. 3월 31일에는 중경에서 군중대회장을 습격하여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였다.

1927년 4월 12일에는 상해에서 혁명군중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을 감행하였다. 이 피비린내나는 대도살은 지방에 까지

파급되었다.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하여 중국혁명은 일시적인 퇴조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중국혁명의 이러한 실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일부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아마 차광수에게 자극을 준 모양이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든. ㄷ》를 무을 때부터 내세운 입장이였다.

그날 나는 차광수에게 조선의 일부 타락한 민족주의자들이 일제에게 굴복하여 『자치』와 민족개량주의를 설교하고 있지만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지식인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일제의 야만적식민지통치를 체험하고 있는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반일정신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런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들과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민족주의에 대한 우리식의 독자적인 해석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는 민족주의를 민족해방투쟁무대에 맨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의 애국적인 사조로 보았다.

(다음호에 계속)

불변의 진로를 밝히는 가치

오늘 조국인민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끝바로 나아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주체100년사가 총화되는 열병식광장에서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이 나아갈 진로는 변함없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시였다.

이 선언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길은 변함없는 주체의 진로이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에로의 불변진로를 밝히는 혁명사상은 바로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심오한 사상이 밝혀져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혁사의 온갖 시련과 풍파를 뚫고 조선혁명을 자주의 곧바른 한길로 줄기차게 향도해왔다.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성이 사람의 본성이고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 것을 해명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혁명위업을 자주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

조선의 첫 세대 혁명가들이 혁명의 길을 개척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온갖 뿌리깊은 사대와 교조가 범람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혁명가들은 주체의 기치높이 자주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왔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유일한 기치로 들었기에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자기 식으로, 자기 힘으로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조국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수 있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총대중시의 혁명사상으로 조선혁명을 백전백승 선군의 한길로 힘있게 향도해왔다.

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의 총대가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되는 혁명의 심오한 리치를 혁사상 처음으로 천명한 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선군은 혁명의 총대를 제일무기, 확고한 담보

로 하여 조선혁명을 자주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가는 리념이고 방식이다. 조국의 군대와 인민이 승리적으로 결속한 두차례의 혁명전쟁은 총대중시사상이 안아온 민족사적결실이다.

우국지사들이 민족개량이나 외세의존, 국채보상이나 청원운동에 매여달리며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할 때 항일혁명선렬들은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벌려 조국을 해방하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였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민족반역의 무리들이 강요한 전쟁에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반격을 가하고 영웅조선의 본래를 보여주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국은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뿐 아니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혁명군대의 위력과 역할에 의거하여 기적을 떨치고 면역의 일대 서사시를 엮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을 인민의 리상과 꿈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길로 향도해왔다.

오직 자기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하늘로 내세우며 인민대중의 리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심화되고 발전해온것이 조선혁명이며 그 진로를 밝힌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제일주의 혁명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선군의 기치높이 자주의 한길을 따라 혁명운동을 전진시켜 달성하여야 할 인민의 아름다운리상과 세기적인 꿈을 실현하는 과학적인 설계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해 펼쳐졌고 사회주의조국땅우에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도 기존의 공식대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의사로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수행되고 있기에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조선혁명의 기치로 변함없이 나붓기는 한 조선혁명의 진로는 영원한 주체의 불변궤도이며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하며 사회주의로 우월한 내 조국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안아오게 될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리영철

길이 빛날 업적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어느덧 65돐이 된다.

어머님의 서거일은 민족해방과 녀성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걸출한 녀성혁명가의 숭고한 생애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돌아켜보게 한다.

지금까지 이름떨친 위인들과 영웅들도 많고 녀성호걸들도 적지 않았으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처럼 그렇듯 영웅적이며 그렇듯 자애롭고 자기 희생적인 위대한 인간, 위대한 녀성혁명가는 알지 못한다.

김정숙어머님을 우러르면 인자하신 그 미소가 눈앞에 어려오고 너무도 일찌기 떠나가신 그 일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진다.

하기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김정숙동무는 조선의 훌륭한 딸이였다고, 그는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일찌기 손에 총을 잡고 10년세월 백두산에서 나와 함께 싸웠으며 백두산의 산발들마다에는 그의 피어린 자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추억깊이 말씀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무송현성전투와 홍기하전투, 대사하치기전투, 황구령전투 등 가렬한 항일의 전장들마다에서 용감성과 위훈을 발휘하시였다.

주체29(1940)년 6월 대사하치기전투에서 어머님께서 울리신 총성은 오늘도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

를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다.

위급한 전투정황속에서도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 예리하게 전장을 살피시던 어머님께서는 혁명의 사령부를 향하여 기여들던 적들을 발견하시고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여 수령님을 막아나서시며 수령결사옹위의 총성을 울리시였다.

그날의 총성은 나라가 해방된 후에도 계속 울리였다.

주체35(1946)년초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저택에서 밤늦도록 선전부문 일군들을 만나시였다.

별안간 멀지 않은 곳에서 총소리가 울리며 전등불이 꺼졌다.

수령님께서는 놀라는 일군들에게 놀랄것이 없다고, 몇몇 쥐새끼들이 쏠라닥거리는 모양인데 좀 쑤고 이야기를 계속 하자고 하시며 출입문쪽으로 걸어나가시였다. 바로 이때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달려 나오시여 출입문을 막으시며 《안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위대의 요구입니다.》라고 절절히 말씀드리시였다.

한손에 쌔창을 틀어쥐시고 현관문을 막아서신 어머님의 모습은 불비쏟아지던 대사하치기전투에서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여 수령님을 몸으로 막으시던 그날의 불멸의 모습 그대로이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여 수령님을 막으시던 그날의 불灭의 모습 그대로이시였다.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시기 위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주체35(1946)년 8월 초순, 어머님께서는 평양시 사창시장(당시)에 걸어서 나가시였다.

시장에서 어머님께서는 고물상에 진렬된 전동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보시고 반동들이 류언비어를 펴드려 민심을 소란케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스쳐보낼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하고 민주정권과 민주개혁을 지지하며 인민경제부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중소기업가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장려하게 된다고 진정이 넘치면서도 사리정연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장마당에 모였던 중소상공인들속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이처럼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오로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였으며 인간의 참된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이룩하신 불灭의 업적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의 심장 속에 빛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부교수 강태일

잊을수 없는 모습

누구나 자기의 인생행로에서 알게 된 사람은 많아도 한생도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내 나이 지금 90이 넘었지만 오늘도 마음은 20대 홍안의 그 시절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로 달려가 안긴다.

날과 달이 끝없이 흐르고 해는 바뀌여도 김정숙동지의 사랑과 믿음이 어린 정다운 손길과 따뜻한 그 미소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

해마다 9월이 오면 나는 김정숙동지가 더욱 못견디게 그리워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아가곤 한다.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으신 친근한 그 모습을 뵈으면 언제나 그랬듯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 같다.

얼마전 나는 국립연극극장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연극 『백두산의 녀동지』를 보면서 그이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에 잠기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적구에 들어가실 때마다 입으시던 자주빛 저고리와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성품이 엿보이는 대사들은 수십년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그이의 숨결을 느끼게 하였다.

연극은 일제의 책동으로 일어난 혜산사건 이후 수많은 지하혁명조직들이 파괴되고 동지들이 희생된 당시의 환경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압록강연안 북부 국경일대에 나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성된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헤쳐나가시였다. 연극에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왜놈들이 우리 나라에서 좋다는 것은 다 빼앗아갔어도 마음속의 정만은 빼았지 못했어요.』라고 하시며 인민들의 친딸, 친동생, 친누나가 되시여 뜨거운 사랑과 정을 다 안겨주



고 그들모두를 하나로 묶어세워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연극을 보느라니 내가 김정숙동지를 처음 만나던 그때가 감회깊이 돌아켜졌다.

김정숙동지의 부대와 우리 부대는 1940년대초 원동의 훈련기지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였는데 그이를 만나는 첫 순간부터 저도모르게 마음이 끌렸

다. 유격대에 입대한지 얼마 안 되는 애어린 처녀였던 나를 따뜻이 품에 안아주시며 상봉의 기쁨을 감추지 못해하시던 그이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

그때부터 나는 인정많고 동지적의리심이 깊은 그이를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고 의지해 왔다.

김정숙동지가 우리의 결을 떠나시기전까지 언제나 나는 그이와 가까이 지내오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충정다해 밭들어모시여왔고 김정일동지를 어떻게 안아 키우시였으며 얼마나 뜨거운 의리와 정으로 동지들을 보살펴주고 인민을 대해주시였는가를 직접 체험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실로 끝이 없다.

주체 38(1949)년 9월 김정숙동지와 영결하는 그날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수많은 동지들, 인민들앞에서 애도사를 읽었다.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글자가 보이지 않았고 나의 목소리는 비애에 떨렸다.

그이를 잃은 상실의 그 아픔은 이렇게 하많은 세월의 흐름도 가셔주지 못하고 있다.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한생을 더듬어볼 때마다 나는 우리의 후대들이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밭들어나가는 길에서 전사의 삶이 가장 영예롭게 빛나며 우리가 살길은 오직 그길밖에 없다는것을 부디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항일혁명투사 박경숙

태양은 마음속에 찬연하고 우정은 천하를 밝힌다

-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

(전호에서 계속)

주석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내성적이면서도 강직하고 열정적인 아버지, 정의를 위함이라면 결단코 뛰여들고 일단 결심만 하면 칼날에라도 올라설수 있는 성격의 아버지를 애틋한 마음속에 모실수 있었다.

진정 나에게 존경하는 아버지를 찾아주신 분은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김일성주석님의 그 우정이 끝내는 반세기전에 떠나갔던 옛 전우의 생명도 재생시켜 자식들과 함께 있게 해주었고 중조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남게 하였다.

잊지 못할 첫번째 접견때 주석님께서는 금천아, 너의 할아버지 장만정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었고 너의 아버지 장율화는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을 도와주었다, 너희들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사람, 견결하고 굴함없는 혁명가가 되여주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면서 자식을 가르치는 친어버이가 되시여 다음과의 말씀을 하시였다.

돌아가면 아버지의 위업을 계승하여 일을 잘하고 지위를 탐내지 말며 우수한 공산당원이 되며 중국의 4개 현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주석님께서는 금천아, 자주 편지를 하여라, 나는 일이 바쁘니 너의 편지에 일일이 회답편지를 보낼수는 없다, 이렇게 하자, 네가 나한테 두번 편지를 보내오면 나는 너에게 한번 회답하도록 하자, 그러시고는 앞으로 조선에 자주 오라고, 너의 아버지

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많아 사흘 낮, 사흘밤을 한대도 못다할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고, 지금은 국가주석으로서 인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책임이 무거우니 시간을 낼수 없지만 너희들이 다시 오고 또 오느라면 내가 네로 보장을 받게 될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다닐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때부터 나는 8차례나 주석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녔다.

조선에 갈 때마다 외국에 간다는 생각이 드는것이 아니라 친아버지가 계시는 고국에 가는 심정이였다. 주석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고 우리들의 사업으로부터 살림살이에 이르기까지 돌보아주시며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첫 조선방문때 주석님께서는 천사만량의 고려꼴에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와 사진기를 선택하시여 우리들에게 주시였다. 금시계에는 사람은 금과 같이 순결하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와 무한대한 시간을 가르치는 친어버이가 되시여 다음과의 말씀을 하시였다.

돌아가면 아버지의 위업을 계승하여 일을 잘하고 지위를 탐내지 말며 우수한 공산당원이 되며 중국의 4개 현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주석님께서는 금천아, 자주 편지를 하여라, 나는 일이 바쁘니 너의 편지에 일일이 회답편지를 보낼수는 없다, 이렇게 하자, 네가 나한테 두번 편지를 보내오면 나는 너에게 한번 회답하도록 하자, 그러시고는 앞으로 조선에 자주 오라고, 너의 아버지

명한 술들중에서도 내가 가져온 무송의 동소파술이 올랐다. 투명한 잔에 송화강물로 만든 술이 하많은 사연을 담고 찰랑이였다. 주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내를 울리였다.

오늘 날씨도 아주 좋은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났다. 자, 첫 잔은 우리 모두 장율화렬사를 위하여 들자.

주석님께서는 일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석잔을 드시였다.

석잔, 무장항일의 나날 그이께서 아버지와 동소파에서 만나실 때에 두분이 바로 석잔을 드시였기 때문이리라.

무송시절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실현되고 행복이 무르녹는 화기애애한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못내 아버지를 잊지 못하시던 주석님이시였다.

추억은 끝없건만 그중에서도 장율화렬사 서거 55돐에 즈음하여 무송의 남전자에 세워진 기념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해야 할것이다.

주석님을 모신 영광의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 서거 55돐을 맞으며 묘비를 새로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새길 비문을 써주실 것을 요청드렸다.

우리들의 진심과 진정을 고맙게 받아주신 주석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우는 묘비에 글을 써줄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념비를 세워주겠다고 하시며 기념비를 세울바치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행사도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사려깊게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석님의 숭고한 뜻대로 훌륭한 기념비가 만들어져 고위급의 조선대표단과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호송하에 평양에

서 압록강대교까지 와닿았다.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일찍부터 교두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무송현과 림강시의 일군들과 우리 장율화렬사유가족들이 김일성주석님께서 보내주신 기념비를 맞이하였고 중국의 자동차대렬이 정중히 인계받아 경찰차를 앞세우고 무송현성으로 향하였다.

자동차 행렬이 길에 나서자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김일성주석님의 우의심에 감상한듯 방금전까지 따뜻한 가을해빛을 비쳐주던 하늘이 희고 큰 눈송이들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송이송이 산골길에 내려앉는 정갈한 눈송이들, 마치도 중국의 옛 관습대로 혈사의 령흔을 위해 하늘이 종이돈을 뿌리는듯하였다. 류례없는 일이여서 우리모두의 감동은 더욱 컸다.

드디어 중조량국의 큰 판심속에 마련된 성대한 전립행사가 시작되었을 때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으로 된 기념비의 글발이 찬연히 빛을 뿌리며 참가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장율화렬사의 혁명업적은 조종인민의 진선의 빛나는 상징이다. 혈사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김일성

1992년 10월 27일』

전우가 회생된지 반세기도 넘었으나 더더욱 깊어지는 우정이였다.

유사이래 동서고금 그 어디에나 우정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 외국의 한 평범한 전우를 위하여 반세기가 지난후에도 잊지 않고 기념비를 세워준 그런 데가 있었던가.

진정 숭고한 우의로 세계를 뒤흔든 김일성주석님은 한 나라의 수령, 국제사회주의운동의 저명한 령도자이시기 전에 가장 위대한 인간, 고결한 의리

의 최고체현자이시였다.

덕행의 기념비는 파라미드보다 영원하다는 말이 있다.

무송의 장율화렬사기념비는 혈사의 혁명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기념비인 동시에 먼저 간 전우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들에 대한 숭고한 의리를 지켜가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하늘과 같은 덕행을 후손만대에 전하는 기념비이다.

고귀한 옛정은 세기가 바뀌여도 변함없다

나는 한생에 내자신이 시를 쓰게 되리라고는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타고난 시재도 없었거니와 인간과 그의 생활을 사진에 담는 나의 직업파도 관련되였을것이다.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속에 시적령감이 떠올랐고 격정으로 충만된 시어들이 샘솟았다.

꿈이 없었으면 하는 말
누가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꿈속에서 삽니다

달뜨는 초저녁부터
해뜨는 아침까지
김일성주석 만나뵙는
꿈속에서 나는 삽니다

...

주석과 마주앉아 이야기하는 꿈
주석께 축배를 드리는 꿈
주석과 노래를 부르는 꿈
주석께서 나의 손을 잡고
무송땅을 거니시는 꿈

이런 꿈, 이런 꿈을
나는 좋아합니다
달콤한 꿈에서 깨지 말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는 꿈 속에서 사는 나의 마음을 담은 이 시는 인류가 낳은 희세의 대성인을 잃은 비통함이 이 행성에서 가셔질줄 모르던 시기에 써여졌다.

그것은 영결의 애석함을 담은 시가 아니였다. 그것은 설사 이 세상의 한끌에 간다 하여도 갈라질수 없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헤어질수 없는 자애로운 성인이신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의 분출이였다.

위대한 주석님과 우리들사이에는 리별이란 있을수 없었다.

왜냐하면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우리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우리 일가에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안겨주시고도 모자라신 듯 비록 서거하시였어도 우리들에 대한 사랑과 은정의 손길을 끊지 못하시기때문이다.

고귀한 옛정은 세대를 이어 세기를 넘어 굽이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와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들에게 한치의 간격이나 한점의 그늘도 없이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주석님이 되여주셨다.

피눈물의 7월, 무송의 하늘도 청천벽력의 비보를 전하며 대줄기같은 비를 쏟아부었다. 우리모두는 억장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처음에는 억이 막혀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고 다음에는 흐느껴울었으며 그다음은 대성통곡이 끊길줄 몰랐다.

애들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라고 하시던 주석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왔으며 온 세계가 모여 주석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던 때에 장율화렬가의 5대인 다섯살난 장맹맹이를 두손으로 추켜드시여 품에 꼭 안아주시고 불을 비벼주시던 인자하신 모습이 안겨왔다.

평양에서 처음으로 설을 쇠는 4대들인 장유와 악지운의 속소

에 찾아오시여 손자와 손녀가 설을 쇠는데 할아버지가 와봐야지라고 하시며 장씨가문의 수교즈의 래력과 중국노래 《소무가》에 대한 고사도 들려주시며 큰할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부어주시던 고매한 인덕도 어려왔다.

너무도 진실하시고 평범하시며 그래서 더 위대하시였던 주석님, 자신을 돋구려고도, 누구의 마음을 사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속생각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던 주석님의 환하신 미소와 웅심깊은 말씀, 친근하신 손동작…

그때에 우리 집에 꾸려놓은 조의 묘시방에도 무송현의 지도 일군들과 각계인사들, 무송인민들이 그칠새없이 찾아왔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령전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향하였다.

금수산의 사당(당시)에 들어서니 추도곡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먼저 주석님께 큰절을 올리고 끓어앉아 머리숙여 인사하고는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무엇인가 주석님께 말씀드리고싶었다.

경애하는 큰아버님, 주석님께서는 올여름에 다시 조선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준비를 갖추어놓고 기다렸습니다. 지난해에 찍어드린 큰아버님의 사진을 액틀에 모시고 선물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저와 금록이가 큰아버님께 여쭈려는 말씀도 가슴에 차넘칩니다. 애들은 큰아버님께 불러드릴 노래까지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저희들이 올 때를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무송에서는 주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아버님께서 싸우시던 곳

에도 가보시고 잊지 못할 거리들도 거니시고 전우의 묘에도 가보시고. 그런데 이렇게 누워계시

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김정일동지께서는 호상을 서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나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였다.

나는 김정일동지께 위안의 말씀을 올리려 하였으나 목이 꽉메여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비합 바 없는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시던 김정일동지께서 오히려 나를 위안해주시였다.

언제 평양에 왔습니까. 다들 잘 있었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오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웅심깊고도 사려깊으신 그이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늘같으신 그이의 위인상이 나의 심장속에 안겨들었다.

그 누가 저 하늘의 태양이 끼쳤다고 하였던가. 아니, 태양은 영원한것이다. 피눈물의 바다우에 태양은 더욱붉었다.

나에게는 김정일동지의 모습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장인하면서도 인자하신 그분의 모습을 우러르느라니 40여일전 위대한 주석님께서 우리 일가에 주신 유언파도 같은 말씀이 되새겨지는것이였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사업하고 생활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덕이다. 그는 나의 건강을 보장하는데서 공로가 아주 많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놀러오너라. 김정일동지가 장율화의 가족들을 잘 돌봐줄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어려워하지 말고 해 한번씩 우리 나라에 오너라.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는것처럼 김정일동지를 믿고 따라야 한다. ...

위대한 주석님의 금언같은 그 말씀을 새겨보느라니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님의 뜻대로 고귀한 옛정을 귀중히 여기

시며 우리 장율화일가를 위하여 기울여오신 남모르는 사연과 사실들이 눈앞에 밝혀왔다.

우리들이 조선에 찾아올 때마다 영접행사와 숙소선정, 방문일정까지 국빈급에서 하도록 친히 조직사업을 해주시고 금강산과 묘향산, 송도원을 비롯한 명산명소들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도록 해주신 김정일동지.

혈사의 손자, 외손녀인 장유와 악지운이 가장 훌륭한 초대소에서 《왕자》, 《공주》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류학을 하도록 하시고 맏아들 장기의 무역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신 김정일동지.

우리들이 조선인민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게 해주신 위대한 그이께서는 주석님을 모시고 무한한 영광과 더없는 행복을 누리는 자리들에 한번도 나선적이 없으시였다. 하지만 우리들은 일군들을 통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님과 장율화렬사의 우정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그 뉴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주시기 위해 누구보다 마음쓰시였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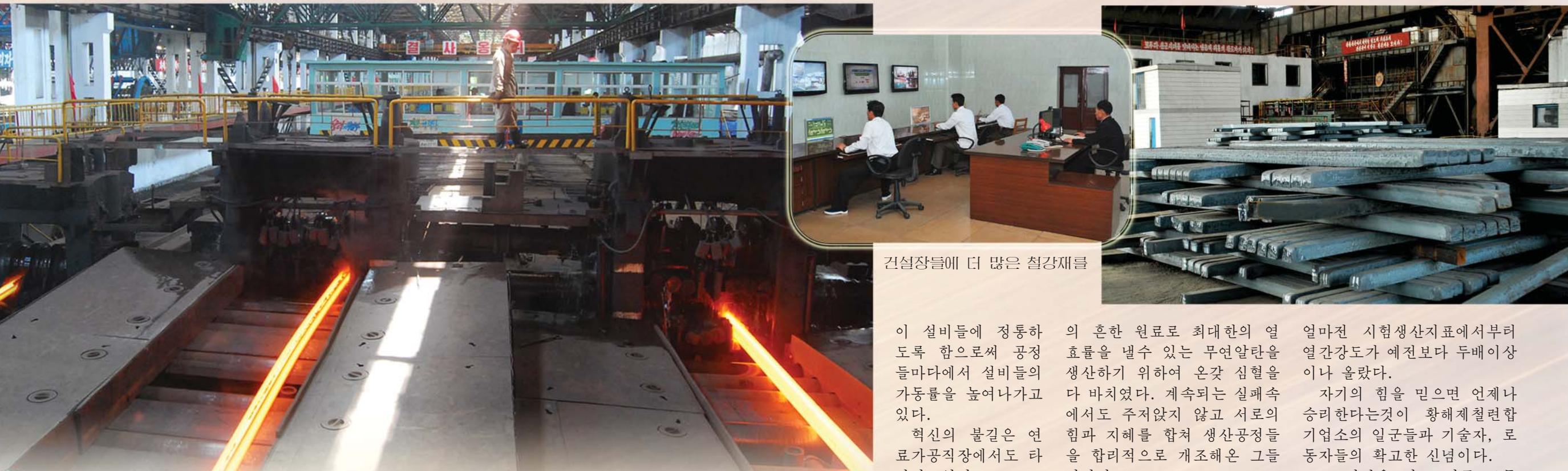
지나온 년대들은 김정일동지의 천출위인상과 더없이 고매한 류리도덕관에 대하여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중에서도 잊을수 없는것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계시던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고 금수산태양궁전에 주석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도록 하신것이다.

그것은 조선인민들과 세계의 량심 그리고 우리 가문에 있어서도 대를 두고 전해가며 칭송해야 할 거대한 공적이고 은공이였다.

장금천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장율화의 아들임.)
(다음호에 계속)



철강재생산에 더 큰 박차를

나라의 흔한 원료를 가지고 철강재를 생산하고 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최근 집단적 혁신의 불길높이 생산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생산목표를 높이 세운 데 맞게 공정간 맞물림을 긴밀하게 함으로써 강판생산의 질과 량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동자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강철직장의 노동자들은 생산의 앞공정을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강철생산을 늘이기 위해 로에 대한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교대당 차지수를 늘여나가고 있다.

분과연직장의 노동자들 속에서도 생산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그 가동률을 높여 질좋

은 강판들을 뽑아 다음공정에 보내주고 있다.

조강압연직장의 압연공들은 중량레루생산의 기본공정을 맡고 있다는 자각을 안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압연 실수률을 높이고 생산된 레루들의 기술적지표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직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

건설장들에 더 많은 철강재를

이 설비들에 정통하도록 함으로써 공정들마다에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나가고 있다.

혁신의 불길은 연료가공직장에서도 타번지고 있다.

직장장 남승도를 비롯한 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가스발생로용 무연알탄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치밀하게 짜고들어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최근 몇해동안 그들은 나라

의 혼한 원료로 최대한의 열효율을 낼수 있는 무연알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였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생산공정들을 합리적으로 개조해온 그들이었다.

책임기사 남윤수는 알탄생산에서 열효율을 높이는 첨가제나 알탄성형에 필요한 점결제 등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내놓은 명안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무연알탄은

얼마전 시험생산지표에서부터 열간강도가 예전보다 두배이상이나 올랐다.

자기의 힘을 믿으면 언제나 승리한다는것이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 신념을 안고 이곳 노동계급은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릴 드높은 기세에 넘쳐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옛날 어느 한 국왕이 산속에 서 길을 잊고 혼매이다가 한 농가를 만나 닭알을 몇알 얻어먹고는 돈을 꺼내면서 닭알값이 얼마나고 물었다.
『한알에 다섯닢을시다. 폐하!』

유모아

국왕과 닭알

《뭐라구? 그런즉 이 고장에는 닭알이 훈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하고 놀라와하였다.

『아니올시다. 폐하! 우리 고장에는 닭알은 매우 훈하오나 국왕은 훈치 않소이다!』

* * *





록색에네르기제품 생산기지

오늘 지구상에는 록색에네르기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이 등장하였다.

이 산업의 창설은 어려운 기술적문제들만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자금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앞섰다고

하는 몇몇 나라들에서도 국가적인 중점파제, 전략파제로 선정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록색에네르기제품을 만경대구역 칠골1동에 자리잡고 있는 조선구월봉련합회사에서



현대적인 광명레드, 태양전지공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마음먹은대로 생산해내고 있다.

누구나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판이 설치된 가로등들이 줄지어 서있는 구내길을 지나 공장의 전시장에 들어서면 황홀한 빛의 세계에 서있는듯 눈부터 비비게 된다.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레드들은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다양한 형식과 모양으로써 크게 실내형, 야외형으로 구분할수 있다. 건물외벽에 불장식을 할수 있게 여러가지 색갈의 빛을 내는 레드등, 건물내부를 화려하게 하여주는 레드등, 탐조등을 련상시키는 투광등, 형광등과



형식이 비슷한 관형레드등, 백열등모양의 구형레드등을 비롯하여 종류와 가지수는 손에 꼽기 힘들 정도이다.

최첨단급설비들을 갖춘 연구실과 실험실들에서는 룩색에네르기제품개발분야의 쟁쟁한 연구사들이 소편, 레드 및 레드등, 재료, 태양전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력량이 조직된지는 얼마되지 않지만 그들은 레드등의 국산화실현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레드등직장은 항온, 항습, 무진화가 보장되어있다. 거기에서는 1W로부터 200W까지의 각종 레드등들이 하나의 흐름선을 따라 생산되어나오고 있다.

이 직장에서 주목할만 한것은 SMT공정이다. 공정에서는 지능화된 레드등기판제작과 전자재료기판제작, 무연납땜, 자동광학검사기능을 갖춘 설비들로 여러가지 형의 레드등기판들과 전원단들을 비롯한 각종 전자회로기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태양전지직장에서는 3세대 태양전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공장에서는 결정규소태양전지보다 발전원가를 훨씬 낮출수 있는 태양전지의 개발과

생산된 제품의 일부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에는 레드등생산전반에 대한 장악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통일적으로 진행 할수 있게 컴퓨터에 의한 자동조종체계와 설비 및 기술감시체계,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 경영관리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다.

회사에서는 제품개발 및 생산, 판매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기술집약형구조를 가진 생산관리체계를 실현하였다.

현재 생산된 제품들은 구매자들속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조선구월봉련합회사 총사장 리총봉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이 세계적주세를 따라가는 공장이 아니라 최첨단 돌파전의 앞장에서 세계를 굽어보며 나아가는 공장으로 일어서게 된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



심한 보살핌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입니다.』

공장의 생명은 국산화에 있다. 앞으로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쳐 국산화비중을 더욱 높이고 레드가 조명뿐아니라 농업, 보건, 수산, 축산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효과적으로 이용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리있는 공장, 인민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공장으로 되도록 하려는것이 이 공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의지이다.

글 본사기자 러 해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송도원의 파도소리

쏴- 철썩, 쳐절썩...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부푼는 바다의 파도소리이다. 지난 7월말 강원도 원산시의 송도원을 찾았던 우리는 그곳의 파도소리에 마음이 푹 젖어들었다.

잠들줄 모르는 파도소리

우리가 송도원의 솔숲에 이른것은 7월 29일 아침해빛이 한껏 퍼진 뒤였다. 한여름의 해볕은 자글자글 내리쪼이며 숲은 물론 송진내 그윽한 공기마저 간들간들 재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아이들의 탄성이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 수백여명의 아이들이 바다에 풍덩풍덩 몸을 잡고있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해수욕장이였다. 색색의 수영복을 떨쳐입고 서로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수영을 배



우고 배워주느라 여념이 없는 아이들, 그들은 우리 나라 학생들과 함께 로씨야, 아일랜드, 웰남, 탄자니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야영생들이였다.

알고보니 그들은 그날부터 한주일동안 야영소에서 이미 구성된 조별로 야영생활을 하게 되어있었다.

야영생들의 세계에 들어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의 흥심은 더욱 커졌다.

해외동포소년야영단 재중동포 1, 2조에 속한 학생들만 보아도 그들은 모래모형만들기, 알아맞추기, 보물찾기, 노래보급, 나라별 민족료리경연, 숨씨품전람회 등 매일매일 세워진 일정계획에 따라 즐거운 나날을 보내였다. 하늘의 별무리가 통채로 펼쳐진듯 실내를 황홀하게 장식한 전자오락실에서 《격술》, 《경마》, 《원시림속에서의 총쏘기》 등 갖가지 오락을 하기도 하였고 립체룰동영화관의 움직이는 의자에 척 앉아 1억 5천만년전의 수립속이며 신비한 바다세계에 가보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다기능화된 현대적인 실내체육관에서 배구와 탁구, 농구를 하였고 체육관의 한옆에 높다랗게 솟은 절벽을 마주하고 등끌이 싸늘해지도록 벼랑타기도 하였다.

야영생활은 그대로 야영생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의 연속이였다. 커다란 왕관모양의 지붕을 엮은 조류사에서 붉은꼬리앵무와 《안녕》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국 심양시에서 온 동포학생들, 운동장의 륙상주로에서 자기들의 단단한 육체를 뽐내며 마라손솜씨를 보이던 탄자니아로리에트국제학교 학생들 그리고 요술세계의 거울집에 들어서서 벽이며 칸막이며 보이는것 모두가 거울과 유리뿐이여서 그와 머리를 쫓다 못해 웃음속에 종시 입구로 되돌아나오던 로씨야 아무르주의 유쾌한 남학생들...

그들의 모습은 볼수록 랑만적이였다. 그 가운데서도 야외물놀이장에 펼쳐지는 모습은 더욱 이채로웠다. 조약대의 탄성판에 올라 휘청이는 몸을 가늠하지 못한채 그대로 수조에 빠지는 학생들, 경사가 70° , 높이가 18m나 되는 아찔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타고 쏜살같이 미끄러져 내리는 학생들...

누구라없이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중국 룽녕성 영구시 조선족중학교의 김경수동포학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재미납니다. 그리고 많은것을 배우게 됩니다.』

수족관에 갔을 때에는 내 발밑으로 몸길이가 2m나 되는 소꼬리가 오리가 해염을 치고 머리우로는 큰 거부기와 상어가 노는것도 보았습니다. 바다동물접촉구역에서는 깜찍한 돌가재미와 조개류, 해삼같은것들을 내손으로 직접 만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상한것은 크고작은 바다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 함께 사는것이였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우리 야영생들의 모범을 본받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제 국적에 관계없이 <친선>팀과 <단결>팀으로 편





을 나누어 축구경기까지 하였습니다.》

언어와 풍습,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이곳 야영소의 한지붕아래에서 함께 뛰놀며 배우며 즐기는 야영생들, 그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문어회전반이며 활쏘기장, 실내수영장, 뾰르장, 화초온실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왔다. 환희에 넘친 그 웃음소리는 마치 잠들줄 모르는 파도소리와 같았다.

파도는 기슭만을 향한다

또 하루 야영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루이틀사이에 야영생들은 이곳에 정이 푹 든것 같았다. 너나없이 깔깔 웃으며 휩쓸리는 속에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그들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이 높이 모셔진 곳의 주변을 정성다해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해외동포소년야영단 재중동포 2조 단장 김경자동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들도 사랑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는것을 아는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곳을 돌아보았지만 고국처럼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크나큰 사랑을 베푸는 곳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활한 퍼조를 지으시고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학생소년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을 격정속에 우러렸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일으킨 전쟁의 상처를 채 가사지 못하였던 주체48(1959)년 6월 송도원을 돌아보시면서 풍치아름다운 이곳에 소년단야영소를 짓도록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그후 여러차례나 야영소를 찾으시여 제일 좋은 것은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야영소는 아이들의 집인것만큼 궁전처럼 꾸려주자고 하시며 야영소를 개건하도록 해주시였고 미제의 극심한 반공화국침략책동으로 하여 나라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던 주체82(1993)년 3월에는 홀륭히 다시 꾸려진 야영소를 현지에서 지도하였다.

우리에게는 며칠사이 우리가 보고 대한 야영 1, 2각의 모습이 다시금 새삼스럽게 돌이켜졌다. 아이들의 심리에 꼭 맞게 모든 요소요소들을 달, 별, 만화영화그림 등으로 장식한 건물의 훌이며 계단, 천정과 바닥,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특성을 살려

하늘색, 연분홍색으로 벽이며 침대보 등을 장식하고 현대적인 가구들을 그쁘히 갖춘 호실들, 야영생들의 구피에 맞게 매끼 10여가지의 찬이 오르는 대중식사실과 생일상을 차려주는 생일식당… 바로 여기에도 후대들을 위하는 또 한분의 사랑이 뜨겁게 어리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든 이곳을 더 잘 꾸릴것을 발기하시고 올해에 여러차례나 야영소를 찾으시여 등산지식보급실에 놓여진 의자배치를 잘할데 대한 문제, 야영생들을 위한 직통렬차와 운행준비를 잘할데 대한 문제, 새로 제작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야영소에 먼저 설치해줄데 대한 문제 등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야영소개건공사가 준공을 앞두었을 때에는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여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고 말씀하시였고 준공의 날에는 온 하루 아이들과 함께 계시며 축구경기며 축하공연, 축포의 황홀경을 함께 보아주시였다.

김경자동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올해 조선반도의 두 바다에서는 서로 다른 현실이 펼쳐져 만사람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형려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백명의



아이들이 무리죽음을 당하였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궁전이 솟아나 아이들의 기쁨이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야영생들이 대원수님들의 동상이 모셔진 곳의 주변을 매일 깨끗이 관리하는 것은 결코 무심히 대할 일이 아닙니다. 동심은 가식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이 깊어졌다. 조선남해의 진도앞바다에서 울려나온 『엄마,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와 조선동해의 송도원앞바다기슭에서 울려나오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소리, 바다의 파도소리는 같아도 파도소리가 전하는 의미는 서로 달랐다. 송도원의 파도소리는 곧 아이들의 진할줄 모르는 맑은 웃음소리였고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키돋움소리였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조국이 밝아지는 소리, 찬란한 래일을 향해 비약하는 조국의 진군소리였다.

촤- 철썩, 치질썩...

바다는 넓어도 파도는 기슭만을 향한다. 마식령 산줄기에서 뻗어내린 산발들을 배경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눈부신 백사장, 청신한 소나무숲, 거기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조화를 이루어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송도원, 지금 이곳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이 달려오고 있다.

수많은 시내물과 강, 대양과 잇닿은 조선동해의 푸른 물이 아른아른 잔주름을 지으며 밀려와 송도원의 바다기슭에 감겨들고 있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복속에서 복을 모르며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은 인민을 위해 기울이는 국가의 혜택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가를 미처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런것을 두고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나도 그 복을 모르는 사람들중의 한 사람이였다.

그러나 몇달전 실생활을 통하여 얻은 체험은 나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귀중한것인지 깨닫게 하였다.

지난해 가을 어느날 우리 인민반에서는 한장의 회람이 돌았다.

『아래의 조항들에 해당되면 거기에 줄을 그어주시시오.』

이런 안내문이 불은 회람은 의료기관에서 인민반으로 보내온것이였다. 나는 몸상태와 관련한 물음이 적힌 종이장을 유심히 보았다. 몇년전까지 중앙정보통신국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온 나는 별로 아픈데는 없지만 몸의 중세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조항들에 줄을 그었다.

그 일이 있은후 나는 원인모르게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로 파송되었다.

초음파검사, 심전도 등 여러 검진을 하였는데 연구소에서는 나에게 입원하여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하는것이였다.

갑자기 수술이라는 말에 나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것 같았다.

(혹시 내가 중병에 걸린것이 아닌가...)

긴장된 나의 모습을 떠여본 의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때마침 왔다고, 조금만 지체했더라면 생명이 위험 할번 했다는것이였다. 하지만 나의 귀에는 의사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수술을 하면 항생제를 맞을수 있겠는데 심한 알레르기성체질인 나는 항생제주사를 맞기만 하면 부작용으로 예상 못했던 증상들이 나타나 지금까지 대체로 항생제를 맞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수술을 한단 말인가.

그보다도 옥경이의 일이 손톱밀의 가시처럼 마음속에 맺히였다. 그애는 내가 나이 마흔이 되어 본 귀한 딸이다.

군사복무를 하고 있는 그가 아버지를 잃은지 스무날만에 어머니가 유선암진단을 받았다는것을 알게 된다면...

이런 위구심으로 하여 나는 연구소에 입원하여서도 병어리 랭가슴앓듯 하였다.

며칠후 5시간동안 진행된 수술은 성과적으로 끝났다. 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의사들은 나의 체질때문에 많은 협의회를 가지였고 밤도 여러날 밝혔

다고 한다. 그리고 수술이 진행될 때 갖가지 고급약들이 나의 몸에 들어갔다고 한다.

평범한 한 여성의 생명을 위해 최신식의료 설비들이 동원되고 의사, 간호원들이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은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고마움으로 나의 가슴에 뜨겁게 젖어들었다.

병원에 입원해있은 20일간 내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각종 검사들과 협의회, 값비싼 약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거액이 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수술자리의 아픔을 느낄세라 살뜰히 돌봐주며 나를 치료해준것도 고마운데 퇴원하는 날에는 수십일간 맞아야 할 값비싼 주사약까지 안겨주었고 또 퇴원한후에는 진료소의 담당의사가 정상적으로 찾아와 관심을 돌려주었다.

나는 생각해보았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선라면 유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나 같은녀성이 생을 다시 찾을수 있겠는가고 말이다.

예로부터 은인에게는 머리칼을 베서 신을 삼아준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무슨 수단을 다 써서라도 자기가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으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세워주신 연구소에서 죽을번한 생을 다시 찾은 나로서는 마음뿐이지 이 대해같은 은혜를 파연 무엇으로 어떻게 갚을수 있겠는가.

내가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초소에서 들은 옥경이는 이 어머니와 자기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편지를 올렸다.

오늘도 밝은 웃음을 지으며 병원문을 스스럼없이 드나들며 모든 의료봉사를 응당하게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다시한번 심장에 새긴다.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사는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그리고 이 고마운 품을 끌까지 지키고 빛내여나가야 한다는것을.

사람들모두가 복받은 삶을 누리는 사회주의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동포의 지성이 깃든 구강병 예방원



병원을 돌아보는 성백히동포 (오른쪽 첫번째)

평안남도 구강병예방원은 평안남도 평성시 문화동에 자리잡고 있다.

병원은 보기에도 아담하였지만 수림화, 원림화되어 주변의 청룡산줄기와 잘 어울리는것이 마치 휴양소를 방불케 하였다.

예방원을 찾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윤명원원장은 《도인민병원의 구강병예방과로 소속되어 있던 우리 병원이 구강병예방원으로 된것은 주체70(1981)년 3월부터입니다.》라고 서두를 떼며 병원으로 안내하였다.

우리가 처음 들린 곳은 1층에 있는 구강내과였다. 상담실 의사들의 친절성도 좋았지만 현대적인 구강종합치료대와 여러가지 치료도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치료실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길줄 몰랐다.

치료를 받은 한 주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시기 저는 이발때문에 좀 고생을 하였는데 여기 구강병예방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특히 초음파치석제거기로 치

구강내과에서



26

석을 정상적으로 제거하고 나올 때에는 정말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오늘도 치석제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후 우리는 사기보철실에 들렸다. 사특사특 돌아가는 구강설비의 음향이 들려오는 치료실에서는 한창 환자에게 사기보철을 해넣고있었다.

의사들이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에게 원장은 지금 구강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구강학적으로뿐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보기 좋은 이발을 해넣으려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수 있는것이 바로 이 사기보철이라 말하였다.

이곳에서 해주는 사기보철은 금파 은을 비롯한 희유금속을 리용한 보철보다 자연이발그대로의 질감과 함께 그 영구성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었다.

사기보철을 해보고싶은 욕망을 누르며 우리는 컴퓨터수자식구강렌트겐촬영실과 기공실 등 예방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구강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자체의 힘으로 수술하고있다.



기공작업에 지혜를 합쳐간다.

현대적인 촬영설비를 통하여 각종 구강병에 대한 진단을 하는 구강렌트겐설비도 훌륭하였지만 기공실에서 하는 기공작업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고주파유도로에 들어갔다가 윤기나는 이발이 되어 나오는 사기이발들은 자연이발과 차이가 없었다.

너무도 신통하여 감탄을 금할줄 모르는 우리에게 원장은 병원에 있는 많은 설비들이 칸나다에서 살고있는 성백히동포가 기증한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평안남도 구강병예방원만이 아니라 청진과 사리원 등 여러곳의 구강병예방원들에도 설비들을 기증하였다고 한다. 한 가정의 안락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그의 동포애앞에 머리가 숙어졌다. 그의 모습은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도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었다.

여러가지 구강치료에 필요한 도구들과 각종 치약들과 약들을 판매해주어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있는 상점도 돌아보며 우리가 병원을 나설 때에는 어느덧 하루해가 기울고있었다.

우리에게는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더 행복하게 오래 살게 될 이곳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어려왔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27

그들의 꿈과 희망

《우승의 단상에서 <애국가>의 장중한 주악속에 오르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꿈이며 희망이다.》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 심정의의 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이곳 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활쏘기기재들을 받아안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 높은 훈련목표를 내세운 이곳 선수들이다. 그들은 가까운 앞날에 활쏘기종목을 국제경기에서 승산있는 종목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을 안고 훈련을 다그

치고 있다.

선수들은 전문육체훈련과 일반육체훈련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과 함께 지능훈련, 전술훈련비중을 높이고 있다.

철봉, 평행봉, 달리기를 비롯하여 매일 훈련파제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높은 훈련강도속에서 힘인내력을 발달시키고 심장과 호흡기능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아령과 구간을 이용한 힘인내력훈련을 통하여 그들은 상체힘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감독이 제기하는 전문육체훈련인 활당거 최대참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훈련들을 진행하면서 자기들의 능력발달과 기록상승에 대한 관찰을 매일매일하면서 훈련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종합훈련



조선속담 (교활성)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여놓는다
나쁜짓을 해놓고 그 일이 드러날
가봐 속여넘기려고 영통한짓을 함을

비겨이르는 말.

-등치고 배 만진다

은근히 남을 해쳐놓고는 어루만져

서 달래는체 하는 교활한짓을 욕으로
이르는 말.
-병주고 약준다

활쏘기선수들에게 있어서 지능훈련은 소홀히 할수 없는 훈련들 중의 하나이다.

활쏘기경기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것 만큼 해비침률과 바람의 방향과 세기, 비와 눈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게 된다. 이곳 선수들은 제시되는 각이한 정황에 대

묘리를 찾아



한 처리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야외에서 실지상황을 조성하여 처리하는 훈련을 결합시켜 진행해나가고 있다.

아직 육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은 그들이지만 조금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무거운 훈련부담을 웃으며 이겨내고 있다.

팀의 자랑으로 이름떨치던 로장선수들이 은퇴한 후 이곳 선수들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선수들의 나이가 전반적으로 어리고 경기 경험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까울 때도 많았다.

얼마전 활쏘기훈련장에는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가 된 최옥실을 비롯한 로장선수들이 예전처럼 다시 섰다. 그들은 출신 훈련의 앞장에서 서서 신진선수들에게 옳바른 훈련기풍을

넓은 사회에서: 사람을 해치고 나서 그를 구원하는 체 한다는 뜻으로 교활하고 음흉한자를 두고 이르는 말.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으며 불을 끄겠다 한다
남의 불행이 더 커지도록 괴하면



훈련조직을 짜고들어

세워주고 있다. 풍부한 경기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높이 세운 육체, 기술적지표들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훈련기풍을 선수들 모두가 본받아가고 있다.

책임감독 리철현과 최학명, 원위준감독들은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훈련장에서 선수들에게 활쏘는 자세가 정확하고 매개 요소별 동작이 옳게 결합되어 통일적이고 균형적이며 조화로운 운동흐름이 보장될 때만이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면서 훈련지도를 하고 있다. 하여 선수들은 서기로부터 활줄에 손걸기, 활을 잡고 밀기, 활줄을 당겨 턱에 붙이기, 숨쉬기와 조준, 끌기, 활줄놓기와 같은 활쏘기기술들을 정확히 습득해나가고 있다.

활쏘기기술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들의 훈련기풍에 의하여 과녁의 중심을 뚫는 명중화살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지나치게 약빠르고 잔꾀가 많은 사람을 비겨이르는 말.

-이저씨 이저씨 하며 길짐만 지운다

지난날에: 곁으로는 존경하거나 아끼는 척 하면서 얼려서 부려먹음을 이르던 말.

미곡벌을 사랑하는 청년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는 청년작업반이 있다. 말하자면 청년들로 무어진 작업반인 것이다.

우리가 작업반에 도착하였을 때 청년작업반원들이 마침 농장별로 나가고 있었다.

『우리 작업반청년들은 누구라없이 고향땅을 사랑합니다. 부모들의 뒤를 이어 고향땅을 가꾸어가는 긍지를 안고 우리는 미곡벌에 청춘의 열정과 땀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와 만난 청년작업반 반장 리광남이 하는 이야기였다.

자기 고향, 자기 작업반원들에 대한 자랑과 함께 고향땅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포부 등 그의 이야기에는 이곳 청년들의 희망과 목표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실지 그들은 지난해에 주체 97(2008)년 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어 알곡계획수행에서 농장적으로 제일 앞섰으며 올해 농사일에서도 앞장에서 달려나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체 97(2008)년 11월에 모범축산작업반의 영예

를 지닌 청년작업반은 주체 99(2010)년 8월에는 전국농촌청년작업반(분조)원들의 예술소품공연에서 1등을 하였다. 결국 청년작업반은 말그대로 팔방미인이였다. 청년들이 모인 집단이 다르긴 달랐다.

주체 97(2008)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아담한 2층짜리 합숙에서 역시 우리는 이곳 청년들의 손길과 체취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호기심이 앞서 먼저 호실들을 돌아보았다. 알뜰하고 정갈한 방들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천연색텔레비죤들과 화면반주기재들 그리고 벽장, 침대, 책장 등이 갖추



어져있어 생활조건은 그ழ하였다. 과학기술지식 보급실과 세목장 등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곳 청년들의 지식습득에 대한 욕망과 알뜰한 생활모습의 단면을 엿볼수 있었다.

청년들은 점심식사후 운동장에서 1분조와 2분조간의 배구경기를 진행하였다. 농사에서만 앞장선줄 알았더니 체육에서도 시적으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그들이였다.

저녁은 저녁대로 청춘들의 즐거운 시간이였다. 작업반선전실에서 진행하는 손풍금과 저대, 기타 등 여러 가지 악기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청년작업반원들의 예술활동도 볼만하였다.

청년작업반에서는 생활도 자기 손으로 꾸려나고 있었다. 180m²짜리 무난방온실과 수압식메탄가스화를 완성하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합숙과 식당의 연료문제를 해결한것 등이 그 단적 실례로 되는것이다.

청년작업반 3분조의 유풍숙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린 자매 간입니다. 수도 평양에서 나서자랐습니다. 농사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농촌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꾸리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여기 미곡벌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는 미곡벌을 가꾸는데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꽂피워나가겠습니다.』

정녕 미곡벌은 미더운 주인들을 안고있었다. 그 주인들에 의해 선군시대의 선경 미곡땅이 더 활짝 꽂피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넓혀간다.



예술소품공연을 앞두고



분조별 배구경기 [주체 103(2014)년 6월 촬영]





똑똑한 꽃동오리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속에 대동강 구역 청류2유치원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유치원은 해마다 재능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하여 전국에 소문이 났다.

고슴도치와 호랑이를 비롯한 여러 동물의 조각이며 각이한 수종의 꽃나무들로 꾸려진 유치원은 외형부터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유치원구내에 들어서니 푸른 잔디가 펼쳐진 넓은 운동장에서는 경쾌한 노래소리에 맞추어 어린이들이 레인보우체조를 하고 있었다.

애기단풍잎같은 손과 통통한 다리를 들었다놓았다 하기도 하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면서 음악에 맞추어 체조를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볼수록 귀여웠다. 그러는 우리에게 이곳 유치

원원장 오설경은 이것이 유치원의 첫 일파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아침체조가 끝난후 우리는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유치원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제일 먼저 들린 곳은 높은1반 교실이였다. 거기에서는 동화이야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있었다.

조용히 앉아 선생님으로부터 『금도끼와 쇠도끼』라는 동화 이야기를 듣고 다매체 편집물을 보는 어린이들에게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의 물음이 시작되자 저마금 대답하겠다고 너도나도 손을 쳐들었다.

조용히 앉아 선생님으로부터 『금도끼와 쇠도끼』라는 동화 이야기를 듣고 다매체 편집물을 보는 어린이들에게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의 물음이 시작되자 저마금 대답하겠다고 너도나도 손을 쳐들었다.

그러는 아이들을 웃음속에 뒤에 남기며 우리는 높은2반 교실에 들어온다.

셋세기시간



무들앞에서 제법 이야기하는 모습은 누구라 할것없이 여무지고 귀엽성스러웠다.

이밖에도 유치원에서 우리는 높은반에 올라온지 몇달 안되였지만 벌써 불러주는 우리 말의 아무 글자나 척척 받아쓰는 높은1반의 김선일, 김예일쌍둥이 형제며 소학교 1학년 수학교파 서문제도 다 풀어나가는 높은4반의 김예건어린이, 우리 나라 노래를 비롯하여 세계명곡을 지적하면 악보상의 요구대로 풍금을 연주하는 높은2반의 리미영 어린이 등 재능이 남다른 어린이들도 볼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높은반의 어린이들속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기초하여 조립식놀이감을 가지고 여러가지 모양의 집들과 자동차 등 자기식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보려고 애쓰는 낮은1반의 어린이들이며 미래의 훌륭한 바이올린연주자가 될 꿈을 안고 바이올린연주연습에 열중하고있는 낮은4반의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유치원의 그 어디에서나 재능의 꽂을 활짝 꽂고있는 꽃봉오리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따끈한 콩우유를 먹는 새참시간이나 푸짐한 식

곤충들의 생리적특성을 잘 알고 있는 김평연어린이



탁을 마주하는 점심시간 등 유치원의 모든 일파시간에는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지능계발과 체력단련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국의 다심한 사랑속에 재능을 키우며 명랑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비껴있었다.

그 모습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얼굴에 한점의 그늘이라도 질세라 따뜻이 돌보아주는 조국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해 하던 해외동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어린이들의 푸른 꿈과 웃음과 행복을 지켜주는 따사로운 사랑의 품이 있어 조국의 앞날은 더 밝고 창창하다.』

어느덧 즐거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곳 유치원어린이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노을비낀 하늘가에 울려퍼져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그래. 귀여운 꽃

봉오리들아, 더 밝게, 더 활짝 피여라. 그리고 마음껏 웃어라.』

글 본사기자 강국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지능놀이시간



우리 말 공부를 잘하는 김선일어린이



그림공부시간

언제나 기다리는 관광지들

- 국가관광총국 국장 김영일과 본사기자의 문답 -



기자: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삼천리금수강산』,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불리워왔다.

산천경개가 류달리 아름답고 수려한 조국에는 관광자원이 풍부하지 않는가.

국장: 우리 나라에서는 관광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곳곳에 훌륭한 관광지들을 꾸려놓았다. 새 세기에 들어와 나라의 관광자원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주체102(2013)년 한해에만도 나라의 동해안 마식령지구에 훌륭히 꾸려진 마식령스키장

해금강을 찾은 관광객들



파 마식령호텔이 건설되였으며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 및 체육관광시설들이 일떠섰다.

주요관광지들은 수도 평양과 개성, 원산과 함흥, 남포와 사리원, 신의주와 청진을 비롯한 주요도시들과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등을 비롯한 명산들과 명승지들이다.

기자: 주요도시들에 대한 관광을 통하여 어떤것을 볼수 있는가.

국장: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는 유구한 역사, 발전된 문화예술, 사람들의 활력 있는 생활모습과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참관하면서 조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을 엿볼 수 있다.

역사문화도시인 개성시만 놓고보더라도 고려역사박물관과 왕건왕릉, 공민왕릉, 고려성균관을 비롯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역사유적들을 참관하

면서 세계문화와 역사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폭넓게 인식하게 되며 관문점과 콩크리트장벽참관을 통하여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민족분열의 수난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절감하게 된다.

기자: 나라의 이름난 명산들과 명승지들에 대한 관광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국장: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나라의 주요명산들뿐아니라 송도원과 명사십리, 몽금포를 비롯한 조선동서해의 아름다운 백사장들과 기기묘묘한 천태만상의 절경을 자랑하는 동굴들이 롱문대굴과 송암동굴, 원산지구의 울림폭포 등 명승지들은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안고있어 사람들에게 류다른 감정을 안겨준다.

우리 나라 6대명산의 하나인 칠보산만 보더라도 금강산과 같이 독특한 산악미와 계곡미, 바다경치 등 칠보산의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부감하고 여러 온



백두산정에 오른 외국인들

천에서 온천욕과 역사유적들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명산과 명승지들에 대한 독특한 맛을 알게 된다.

기자: 최근 다양한 주제의 전문관광이 적극 개발되어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있지 않는가.

국장: 그렇다. 최근년간에 조선에 대한 관광의 인기가 높아지는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문화관광, 체육관광, 비행기애호가관광, 자전거관광 등 전문관광을 적극 늘여나가고있다.

문화관광일정만 보더라도 국립교향악단과 학생소년들의 예술공연, 혁명가극과 교예공연 관람, 역사박물관과 역사유적 참관,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미술창작기지들과 평양민속공

원참관, 민족음식맛보기와 민속풍습체험 등으로 다양하게 둑어져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조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깊은 흥미를 가지게 한다.

또한 우리나라 명산들에 대한 등산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여러 국제체육경기관람과 참가, 우리나라 체육애호가들의 친선경기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체육관광일정들, 여러 가지 기종의 비행기들에 대한 실물참관과 사진찍기, 비행기타보기 등의 비행기애호가관광, 나라의 여러곳을 자전거를 타고다니면서 산천경개를 부감하는 자전거관광도 조선의 아름다운 자연경치의 진미를 체험하게 하고 관광객들의 체육

등 다양한 기회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여 그들의 흥미를 끌고있다.

이밖에도 공장들과 협동농장들, 목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경제대상들에 대한 참관관광도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투쟁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것으로 하여 관광객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다.

이뿐만아니라 조국의 관광자원에 대하여 하나하나 짚자면 끝이 없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우리나라의 관광지들에서는 사계절 관계없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있다.

* * *

칠보산



묘향산 상원암을 찾은 근로자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친필비



고구려시조 동명성왕기적비

천년강국의 시조릉이 전하는 이야기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는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이름멸치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빛내인 고구려가 있다.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첫 봉건국가로 출현한 고구려는 지금으로부터 2 000여년전인 B. C. 277년에 고주몽이 세운 나라이다. 우리 민족은 첫 봉건국가를 세운 고주몽(B. C. 298년-B. C. 259년)을 동명성왕으로 떠받들며 평양의 풍치수려한 곳인 력포구역 통산리에 시조릉을 만들고 해마다 그의 제를 지내왔다.

지난 5월 우리가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찾았을 때였다.

그곳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동명왕릉을 발굴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 40돐기념 동명왕릉과 그 부근에서 발굴한 고구려시기의 유적 유물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시회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전시회장에 들어서니 고구려시조왕의 무덤답게 웅장하게 솟아있는 왕릉(모형)의 전경이 눈앞에 안겨왔다. 무덤길과 앞칸, 안칸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돌칸흙무덤인 왕릉, 무덤안칸과 앞칸에 있는 자색바탕에 천송이의 련꽃을 그린 벽화, 무덤앞의 돌상과 돌등, 두개의 범조각상과 좌우로 고구려의 건국에 공을 세운 문무관들의 립상 그리고 웅장한 풍문과 제당건물, 고구려시기의 사찰이었던 정릉사와 풍주변의 고구려시기의 무덤떼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민족적공지와 함께 고구려시기 문화에 대한 인식을

동명왕릉



더욱 깊이 하여주었다.

우리를 전시회장으로 안내한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학술실 연구사인 리승렬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명왕릉이 오늘처럼 천년강국의 시조릉답게 개건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그는 우리에게 동명왕릉의 성격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개건과정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역사학계에서는 평양시 력포구역 무진리(당시)에 있는 무덤이 고구려건국시조의 름일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봉건왕조의 실록을 비롯한 일부 역사책들에 고구려시조왕릉이라고 전하는 무덤이 평양부근의 통산땅에 있다고 기록되어있었으나 어떻게 되여 무덤이 평양부근에 있게 되였는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더우기 일제의 도굴파괴행위와 역사외곡책 등으로 인하여 일부 학자들속에서는 고주몽이 졸본에서 활동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무덤도 졸본에 있다는 자기들의 견해를 그냥 고집하고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학계의 이러한 견해를 료해하시고 몸소 름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름을 전면적으로 발굴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무덤을 전면적으로 발굴하게 되였는데 름과 그 주변에서는 왕급의 유물들과 3만 7천 m²에 달하는 정릉사터도 발견하게 되였다. 그 가운데서도 보요와 무

덤의 내부에 그린 벽화의 바탕색이 자주색이라는 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주색은 신분등급에 따라 옷색깔이 정해져있던 당시 고구려왕의 의복색깔로 리용되던 색이였으며 보요는 왕관의 장식품이였다. 이 모든것은 통산리부근의 무덤이 고구려시조릉이라는것을 말없이 증명해주고있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조선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부모의 유해를 옮겨가는 풍습을 가지고있었다고, 하물며 고구려는 국력이 막강한 나라였는데 수도를 천도하면서 자기의 시조릉을 옮기지 않았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주체81(1992)년 12월 28일 동명왕릉개건현장에 또다시 나오시여 이제는 시조왕묘 하나 제대로 모실줄 모른다는 후손들의 욕을 면하게 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으며 름이 개건될 때에는 친히 봇을 드시고 비의 앞면에 한자로 『동명왕릉개건기념비』라는 글발을 써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아들이 이를있는 학자들로 연구사업을 하도록 하시고 강력한 설계력량과 건설집단을 무어 개건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여주시고 공사의 시작부터 마감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드디어 동명왕릉은 동방의 천년강국의 시조릉답게 개건되었으며 주체82(1993)년 5월 14일 동명왕(고주몽)이 태여난지 2291년이 되는 날에 개건식을 진행하게 되였다.

전시회장을 나서며 우리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민족의 역사와 전통도 그것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품이 있어야 빛을 뿌리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동명왕릉 제당의 일부





봉산탈춤을 사랑하는 화가



김승희

산탈춤에 대한 소개편집물을 보게 된 그는 대번에 창작적 흥분으로 마음설레이였다. 괴리, 장고 등 민족악기들의 연주에 실려 한삼(손을 감추기 위해 걸웃 소매끝에 길게 덧대던 훤천)을 휘저으면서 추는 약동적인 춤 동작은 온갖 잡귀신을 물리치고 자기의 생활을 꽂피우려는 당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는 이 춤을 화폭에 옮기기로 결심하였다. 이어 봉산탈춤에 대한 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찾고 또 찾으며 탈춤에 등장하던 인물들의 옷차림과 춤가락 등을 연구하기도 하였고 봉산탈춤이 나온 고장인 황해북도 봉산군의 역사유적들을 찾아다니며 탈춤과 관련한 일화들을 수집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때로 하나의 자료를 교증하기 위해 역사, 민속, 민족 고전 연구

사들을 찾아 수시로 걸음도 하였고 때로는 화면에서의 운동감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거울앞에 나서서 탈춤의 한동작인 팔굽을 굽혔다렸다 하는 《깨끼춤》동작을 몇번이고 해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한장, 두장… 그림을 거듭 그려나갔다.

마침내 조선화 《봉산탈춤》이 창작되었다. 작품은 국내에서 인기를 모은 것은 물론 주체 95(2006)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적인 전람회에 출품되어 금상을 수여받았다. 사람들의 감흥은 대단하였다. 《착

가족들과 밤거리를 거닐며…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탈놀이를 즐겨하였다. 노래와 무용, 재담 등으로 이루어진 이놀이 가운데서도 탈을 쓰고 궂거리나 타령장단에 맞추어 추던 탈춤은 사람들의 흥심을 더욱 돋구어준다.

오늘날 조국에는 이 춤에 유별한 관심을 가지는 화가가 있다. 그의 창작실에 가보면 벽에는 길이가 2m남짓한 조선화 《봉산탈춤》이 걸려있고 방의 한켠에는 탈춤과 관련한 책들과 19세기말 해서(황해도일대)지방에서 널리 쓰이던 탈들을 모방한 가면들이 놓여있다.

옛춤을 사랑하는 현대화가, 그는 김일성상계판인이며 인민예술가인 만수대창작사 창작가 김승희이다.

그가 이 춤에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언제인가 텔레비죤으로 봉

상이 새로운 작품》, 《민족색채가 질고 개성이 뚜렷한 명화》, 《세계를 휩쓰는 서방문화의 <일색화>를 물리치는 조선화》…

봉산탈춤에 깃든 그의 마음은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려는 자각과 의지,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는 자서전 첫페이지에 《민족의 향취 은은한 가야금소리, 그속에서 열정의 힘치 살아움직여 태양을 노래하고 민족의 넋이 맥박치는 그런 그림만을 그리고싶어라!》라고 썼다.

팔순을 가까이 한 그의 한생을 돌이켜보면 바로 그 마음으로 창작된 작품들이 800여 점이나 된다. 거기에는 그의 첫 작품인 유화 《전진》[주체 54(1965)년 창작]과 함께 뜨거운 동포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재일동포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인적 풍모를 형상한 조선화 《어버이품》, 민족문화와 생활풍습을 주제로 한 조선화 《김장철이 왔다》와 《봉선화 꽃 필적에》 등 국보적인 작품들도 많다.

얼마전 그는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 도꾜에서 나서자란 나는 민족적 멸시와 가난속에서 도그림만은 그리고 싶어 무사시노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하였다.

학비를 제대로 물수 없어 목탄으로 봇을 대신하고 점심에 차례지는 한조각의 빵으로 지우개를 대용하곤 하였다.

그러던 나에게 행복이 깃들기 시작한 것은 수령님의 사랑

학비를 제대로 물수 없어 목탄으로 봇을 대신하고 점심에 차례지는 한조각의 빵으로 지우개를 대용하곤 하였다.

그러던 나에게 행복이 깃들기 시작한 것은 수령님의 사랑



신인창작가들과 함께

상식

환자에게 알맞는 파일

① 심근경색환자는 사파와 같은 파일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이런 파일에 산이 많아 변비증에 걸리기 쉽고 변비증은 심근경색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바나나와 귤을 적당히 먹으면 변이 잘 배설된다.

② 심장이 약하고 부종이 심한 환자는 수분이 많은 파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수박을 많이 먹거나 야자즙을 많이 마시면 심장쇠약과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다.

③ 당뇨병환자는 당분이 많은 바나나, 사파와 같은 파일을 먹지 말아야 한다.

④ 위산이 많은 환자는 양吠, 사파, 추리와 같이 산도가 높은 파일을 먹지 말아야 한다.

⑤ 설사하는 환자는 바나나, 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사파를 먹으면 설사를 멎출수 있다.

글 본사기자 흥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대지에 널치는 기쁨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해 가는 우리의 취재길은 얼마전 황해북도 황주군으로 이어졌다. 다총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거리를 따라 늘어선 황주읍지구는 어디를 보나 구색이 맞고 깨끗하였다.

읍거리에서 가장 이채로운 것은 류다른 정서를 자아내는 큰 못이였다.

못은 누에고치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면적은 2만m²정도는 살히 되여보일 듯싶었다. 못안에는 둥글넓적한 푸른 잎들이 물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여있었고 그우로 꽃망울들이 솟아있었다. 못가에는 푸른 잎새를 흐느적이며 베드나무들이 서있었다. 우리는 못가의 시원한 그늘아래서 낚시대를 드리운 낚시애호가들의 모습에 이끌려 그들가까이로 다가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경일이라고 부르는 로인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못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해 하자 그는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것이라며 황주련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이때 어디서인가 랑랑한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저 소리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은 황해북도중등학원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 웨다. 학원에서는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그칠 새 없수다.』

한경일의 말에 우리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운동장에 들어서니 원아들이 동그런 원을 그리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원아들의 밝은 모습에서 한동안 눈길을 뗄수 없었다.

모두들 운동복을 떨쳐입고 하나같이 건강해보이는 얼굴들에 함뿍 웃음을 담고 좋아라 당실당실 춤추는 그들을 두고 어떻게 부모없는 아이들이라고 하겠는가.

학원의 일군들과 교원, 교양원들은 도안의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밖에 자라나도록 그들에게 친부모의 사랑을 다 기울이고 있었다. 원아들의 친부모, 친누나가 된 교원들 가운데는 이곳 중등학원을 졸업한후 교원대학을 마치고 교단에 선 김혜심도 있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있는 김선흥, 리애경동포들이 학원에 기증한 종합운동들이기재와 그들의 뜨거운 민족애의 마음에 떠받들려 솟아오르고 있는 기숙사건설장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이어 우리는 생산만부하의 동음높은 황주은하 괴복공장과 장공장, 독공장, 파실가공공장 등에

도 들려보았다. 우리가 들려본 그 어디에서나 생산현대화에 힘을 넣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황주사람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그대로 황주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황주천을 막아 세운 1, 2호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인민들의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었다.

올해 군에서 목표로 내세운 읍지구의 자연흐름식상수도체계는 어느덧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공사를 시작한지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황주천가까이에 집수정(물을 잡아두는 곳.)과 양수장이 번듯하게 세워졌다. 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물원천이 무진장할뿐아니라 모래층에 의한 자연적인 물려파공정으로 하여 더욱 맛이 좋은 물을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공사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었다.

지난날 흙먼지만 날리던 황주읍지구에 도시부럽지 않은 선경을 나날이 펼쳐가는 이곳 인민들,

제손으로 고향땅의 래일을 가꾸어가는 궁지와 보람을 안고 하루일을 끝마친 황주군 인민들이 어느덧 서쪽하늘에 피여나는 노을빛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기쁨에 넘친 모습에서 우리는 더 아름답게 변모될 황주군의 래일을 눈앞에 그려보며 그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황주은하피복공장



황주군류경남초급중학교에서



황해북도중등학원의 원아들



황주군인민병원에서





중국 길림성 장춘시 조양구 관평대로 1346호 길립수리수전
공정국 우편 130062 동소군 (방) 허해월고모 앞

자기 만날 날을 기대하여

고모, 그간 안녕하십니까.

그사이 나이많으신 고모와 소곤형님 그리고 정자누이와 성남형님 등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잘 있습니까.

서로 만나본지 세해가 되였는데 마치 펴그나 오랜 세월이 흐른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에 소곤형님앞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 이렇게 다시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모두 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보다 건강이 꽤 좋아져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내고있습니다. 이제는 작은누이도 년로보장으로 집에 들어와 형님과 큰 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하고있습니다.

우리 집식구들도 모두 잘 있습니다. 원예사로 일하는 저의 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향이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뒤질세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초급중학교 1학년 학생이 되더니 아예 딴사람이 되였습니다. 앞으로 커서 과학자가 되겠다며 직심스레 공부에 열중하는데 정말 대견합니다.

저도 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애를 먹이던 만성맹장염을 조국에 나와서 인차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한 시간도 병원에 입원한 나날도 얼마되지 않았지만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얼마나 성의를 다해 치료해주는지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나라의 무상치료제에 대하여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고있느라니 그때 제가 고모와 형제들을 불안하게 만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참, 지난번 편지에도 썼지만 지금 저는 창천거리의 불밝은 창가에서 아름다운 평양의 밤경치를 부감하며 편지를 쓰고있습니다.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꾸려진 크고 넓실한 새집에 입사하던 날 우리 형제가족들 모두가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어머니를 비롯하여 모두가 고모와 누이와 형님들에 대한 이야-



기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형제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을 때면 그곳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평양에 새로 일떠선 공원들과 문화휴식장소들에서 명절날과 휴식일을 보낼 때면 더하답니다.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그리워지는게 아마 혈육의 정인것 같습니다.

3년전에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모두들 조국에 자주 나와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있는 평양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통라인민유원지며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등 문화휴식장소들이 평양의 어디 가나 새로 일떠섰고 오늘도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평양은 물론 나라의 곳곳에 일떠서고있습니다. 조국의 모습은 말그대로 날에 날마다 변모되고있습니다.

고모, 이제는 나이도 적지 않은데 더 나이들기 전에 누이와 형님이랑 함께 조국에 한번 꼭 오십시오.

와서 우리 집에도 와보고 변모된 조국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우리들과 함께 모여앉아 혈육의 정을 나누어봅시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고모와 형님, 누이들을 비롯한 온 가족과 친척형제들이 건강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럼 이만 편을 놓으렵니다.

평양시 중구역 만수동
38인민반 허명철조카로부터

(인) (상) (기)

겨례의 어버이

나는 조국을 세번째로 방문한다. 조국에 올 때마다 나는 많은 곳을 돌아보며 하는데 제일 인상깊은 곳의 하나가 만경대고향집이다.

만경대고향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곳이다. 여기에는 지난날 모진 고난속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바쳐 싸워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일가분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사적물들이 보존되어 있다. 그것을 보면 나는 수령님의 한평생은 언제나 겨례의 운명과 함께 흘러왔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이께서는 10대

의 어리신 나이에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결심을 안으시고 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한평생 민족의 해방을 위해 그리고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 겨례를 위해 베푸신 크나큰 사랑과 업적은 이루다 해아릴수 없다. 우리 재일동포들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그이께서는 이역에 사는 우리들의 생활을 늘 관심하시며 종련조직을 무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걸음걸음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사랑속에 우리 동포자녀들은 수십년세월 조국으로부터 해마다 많은 교육원조비

와 장학금을 받아안으며 민족의 대, 애국의 대를 끊임없이 이어왔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오늘도 우리 동포자녀들에게 그대로 돌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겨례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물론 해외각지에서 사는 동포들 누구나가 오늘도 그이를 우리르며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고있는것이다.

총련 금강산가극단 배우 리경미

지성품들인 단검, 도자기꽃병, 수정술잔, 유리파일그릇, 탁상시계, 옥돌사무용품 등을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뜨거워만졌다.

온 세계가 우리를 따르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보신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이 가슴에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나도 깊은 뜻이 담긴 지성품을 마련하고 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나의 그 마음은 꼭 실천으로 옮겨질것이다.

로씨야 모스크바시
장 왈레리



나는 고국을 단히 인상에 깊었다.

국가선물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가까이 하고 있는 유서깊은 통약산기슭에 자리 잡고있었다.

전시된 선물들 하나하나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가득 실려있었다.

수많은 선물들 가운데는 우리 재로씨야동포들이 올린 선물들도 적지 않았다.

석명손, 리구율, 로영진, 정일심을 비롯한 동포들이 올린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고국방문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

지난 4월 태양절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제16차 김일성화축전,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국제륙상련맹-제27차 만경대상마라ソン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 참가하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흐르는 행



모란봉에서



월향전시관에서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다.

사들에 참가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넘쳐있었다.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는 『아름답게 피여 난 김일성화를 바라보니 해외 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원한 태양의 미소가 어려옵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자주 몸가까이에 불러주시고 영광의 자리에도 내세워주던 대원수님 이시였습니다.

우리는 그이의 은정과 믿음

을 한시도 잊지 않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밟들어 모시며 통일애국사업을 더 잘해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방문의 나날 동포들은 금수산태양궁전, 만경대고향집, 개선문 등 평양시의 여려곳을 돌아보았다.

주체사상탑전망대와 모란봉에 올라 동포들은 전변되어가는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기렌즈에 담기도 하였으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도 보내였다.

어깨춤도 한바탕…



주체사상탑전망대에 올라

나이 80을 가까이 한다는 주영자동포는 『이번에 조국에 와보니 대원수님은 우리 겨레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 그 어느곳에 가보아도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대원수님을 절절히 그리워하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이의 미소는 부강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원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개구이맛 좋다》

조개들을 다 세워놓은 후 그우에 병에 담은 휘발유를 솔솔 뿌리고 불을 달자 조개들이 불길에 익으며 날리는 특유한 냄새가 동포들의 창자를 뒤흔들었다.

하나 또 하나… 동포들은 정말 별맛이라면서 얼굴에 웃음을 가득 짓고 맛나게 들었다. 장 왈레리동포는 상점에서 미리 사 가지고 온 송악소주를 꺼내 자기의 손에 들려있던 조개껍질의 하얀 안속에 술을 가득 부었다.

《통악산에서 이렇게 조개구이맛을 볼줄을 우리 상상이나 하였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며 조개껍질을 든 동포들에게 차례차례 술을 부어주었다. 녀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였다.

이때 김칠성 제1부위원장은 언제나와 같이 사람 좋은 얼굴에 웃음을 짓고 대통이 든 한손을 가볍게 흔들며 그의 말을 받았다.

《내 몇 해 전에 서해갑문참판을 갔다가 그곳 바다가 바위우에서 처음으로 대합조개구이맛을 본 후로 그 맛을 정말 잊을수 없었소.》

안해인 리로자에게 정성껏 조개껍질을 까서 손에 쥐여주는 남 겐나지, 그에 못지 않게 박순옥과 하옥자동포들에게 리구율, 장 왈레리, 김 모이쎄이 등 동포들이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조개를 권하고 있었다.

박동포와 하동포의 앞에 수북하게 쌓인 조개껍질을 본 리구율동포는 정답게 염지손가락을 내흔들어보였다.

처음부터 말 한마디 없이 조개구이맛만 보던 70고령의 전 에디스박사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잊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기좋고 물맑은 통악산에서 조개구이맛을 본 오늘을 말입니다. 신선한 고국의 향취를 이 가슴에 안고 살겠습니다.》

그의 말에 동포들 모두가 《조개구이맛 좋다!》라고 호응하였다.

통악산에서의 조개구이, 그것은 단순한 한끼의 식사가 아니라 조국의 향기와 넋을 가슴깊이 새겨안는 귀중한 체험이였다.

본사기자 연 옥

한 편집물에 깃든 사연

최근 재중동포들 속에서 인기를 끄는 CD가 있다. 여기에는 많은 노래가 특색있게 편집되어 있다. 가정과 일터, 상점과 식당 등 동포들이 있는 곳마다에서 호평을 받는 CD, 누구나 들을 수록 심취되고 정서가 그윽해진다는 이 제품에는 한 동포일군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 김송미동포, 그가 이 CD편집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두해전부터였다.

당시 그는 자기의 사업을 놓고 생각이 많았다. 청년사업은 단합파 애국으로 지향되어야 하였다. 성격과 취미, 직업과 사는 곳이 서로 다른 동포청년들이 마음과 마음을 합쳐 애국의 대, 민족의 대를 변함없이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조국과 민족, 동포조직에 애착심을 가지고 스스로 애국애족의 길에 나서도록 하여야 하였다. 더우기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서가 풍만한 청년들의 일반심리를 놓고 볼 때 청년들과의 사업은 하나의 참신한 예술을 동반해야 하였다. 하여 그는 그 방도의 하나로서 동포청년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노래들을 수록한 CD편집물을 만들 것을 결심하였다. 이어 그 일에 적극 달라붙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험치 않았다. 그는 조국의 각종 출판물들과 인터넷을 열람하며 민요, 가곡음악, 영화음악, 현대가요에서도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자기 가정과 고향,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다주고 나아가서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애듯한 사랑의 감정을 간직하게 하는 CD》，《노래를 통하여 절로 감정이 승화되게 하는 훌륭한 음악CD》… 이것이 그가 만든 편집물에 대한 사



김송미

용자들의 평이다.

그는 련이어 《조국》, 《사랑》 등의 제목으로 된 조선명곡집 2, 3을 만들었다.

오늘도 그는 동포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창작적 사색을 펼쳐가고 있다. 아름다운 노래 선률들이 동포들의 생활 속에 흘러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국애, 민족애를 더 활짝 꽂아 퍼위 가도록 하려는 것이 그의 마음인 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일

끌맺지 못한 이야기

우리의 취재길에는 즐거운 일화도 많다. 여기에 종려 금강산가극단 배우 황병수동포와 나눈 이야기를 적는다.

장미꽃을 꺾기 위해

우리가 그를 알게 된 것은 3년전 2월 어느날 평양대극장에서 공연을 앞둔 때였다. 당시 그는 광명성절(2월 16일)을 경축하는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에 참가하게 되었다. 서글서글한 눈에 웃음마저 호방스러운 그는 우리와 인자 통성했다. 어느 사이 우리의 화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제가 애인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뗀 그는 우물의 물을 펴내듯 자기의 『비밀』을 꺼내놓았다.

그가 가극단에서 기량훈련을 하던 어느날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한 처녀가 가극단에 배치되어왔다. 이름은 김남연, 늘씬한 키에 예쁘장한 얼굴… 처녀와

함께 생활하게 된 그는 마음이 즐거웠다. 총각들의 심리가 다 그러하듯이.

그런데 그후 그의 가슴에서 방망이질회수가 잦아졌다. 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동무의 의향도 모르면서 은근히 그를 위해 원심을 쓰운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그에 대해 잘 알게 되었는데 그는 대학교시절에 일본반동들의 민족차별책동이 우심한 속에서도 우리의 말파 글, 우리의 옷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 동무는 이따금 톡톡 내쏘는 성미이긴 하지만 저는 결심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장미꽃을 꺾으려면 가시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에게는 사랑은 리상파 감정의 일치라고 한 누군가의 말이 되새겨졌다.



황병수

짙어가는 향기

우연이랄까. 지난 4월 우리는 또다시 평양대극장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을 방문하였던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이번에는 노래 『안해의 품격』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남편의 음식상에 민족음식-김치를 꼭꼭 놓아주며 노래와 함께 사랑을 꽂피워간다는 가사내용을 들려주었다.

혹시 그사이 그의 생활에서 변화가 있은것이 아닌지. 아니나다를가 3년전 조국에서 혼성2중창을 부른후 석달이 지나 그는 김남연동포와 결혼하였다. 그는 흘러온 가지가지의 일들을 정답아 이야기해주었다. 결혼식날 민족풍습을 살려 첫날옷으로 바지저고리와 치마저고리를 만들어입고 가극단성원들과 함께 민족가곡 『춘향전』의 노래를 부르던 이야기, 결혼후 김치며 떡을 특별히 좋아하는 자기를 위해 친정집에서 만들어준 김치로 음식솜씨를 뽑내다가 들판났던 안해에 대한 이야기, 아들을 낳은후 부모의 뜻을 훌륭히 이어가라고 지원(뜻지, 완전할 완)으로 이름짓던 이야기…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신혼생활이라고 하여 즐거움만 있은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해에 100여회나 되는 가극단의 순회공연에 부부가 다 참가해야 하니 젖먹이자식을 놓고 걱정도 많았고 생활상애로도 여러가지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일생 한길을 걸어가야 할 부부입니다.』

어느덧 공연시간이 되였다. 그의 이야기는 끌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이역에서 나날이 짙어가는 민족의 향기, 새 세대 동포청년들이 가꾸어가는 동포사회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흥정혁

민족의 향기

옻칠꽃병
『금강산팔
선녀와 목
란꽃』



생활의 윤택함을 자아내는 옻칠공예

나무림에서 받아내는 옻은 그 질이 매우 좋습니다.

옻은 산, 알카리, 수분, 높은 온도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옻칠공예품들은 몇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옻칠공예는 오랜 역사を持고 있습니다. 원시 및 고조선시기 유물들에서 옻칠한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삼국시기에는 벌써 우수한 옻칠공예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고국원왕릉(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는 고구려 고국원왕의 무덤, 4세기 중엽에 만든 고구려벽화무덤)과 금관무덤(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신라때의 왕무덤. 화려한 금관이 나왔기 때문에 금관무덤이라고 부른다.)을 비롯한 옛무덤들에서 발굴된 옻칠판, 옻칠그릇들이 채색옻으로 훌륭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은 그 실례의 하나로 됩니다.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

옻칠공예품을 창작하는 창작가들



그런데 가만, 옻에 대한 표상이 전혀 없을 새 세대 동포들을 위해 옻이란 과연 어떤것인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기로 합시다.

옻은 옻나무의 줄기에서 받아낸 진입니다. 넓은잎작은키나무인 옻나무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에 퍼져있습니다. 특히 평안북도 태천지방에 있는 옻

우리 나라의 갑문들

에는 자개박이 웃칠공예가 매우 발전하였습니다. 고려의 옛 무덤들에서 나온 사신도, 채색칠 판, 솔잎형자개박이함, 호수가 풍경자개박이함 등과 조선봉건 왕조시기의 포도무늬자개박이 함을 비롯한 유물들은 당시 우리 나라 웃칠공예의 발전된 면모와 특성을 보여줍니다.

웃칠공예에는 웃칠그림, 자개박이 웃칠공예, 건칠공예 등이 있습니다.

웃칠공정은 칠할 물건(나무, 천, 종이, 금속 및 사기제품 등)에 웃을 칠하고 연마를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말리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처럼 웃칠제품은 미적 가치가 있어 보기에도 좋을뿐만 아니라 강한 살균작용으로 하여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요가 높습니다.

태천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뿐 아니라 만수대창작사 공예창작단에서도 품위있고 리용 가치가 높은 웃칠공예 품들을 수 많이 창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이가 2.4m나 되는 대형 웃칠꽃병 『금강산팔선녀와 목란꽃』은 뛰어난 예술적 형상으로 하여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안의 장식품으로 뿐 아니라 생활용품으로도 리용 할 수 있는 웃칠공예 품은 아마 보기만 하여도 욕심이 날 것입니다.

언제나 생활의 윤락함을 더해 주며 아름다운 빛을 뿌리는 웃칠공예 품을 가까이 할 수록 동포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나날이 젊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국에서는 흐르는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있다. 그것은 수상운수, 전력생산, 농촌경리의 수리화 등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곳곳에 세워놓은 갑문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갑문들로는 서해갑문, 미림갑문, 봉화갑문, 순천갑문, 성천갑문 등이 있다.

서해갑문은 대동강하류의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아 건설한 바다갑문으로서 주체 75(1986)년 6월에 준공되었다. 서해갑문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된 세계적 규모의 수리구조물이다.

서해갑문이 건설됨으로써 대동강하류에 대인공호수가 생겨나게 되고 그곳의 풍부한 물로 간석지 물문제를 비롯하여 대동

강하류 지역의 관개 용수 문제와 공업 용수, 음료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물과 수해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동강과 재령강의 수심이 깊어지고 갑문언제우로 철길과 자동차길이 생겨나 서해안 일대의 교통 운수 발전에서 새로운 전망이 열리게 되었으며 대동강 양안의 풍치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게 되었다. 서해갑문에는 3개의 갑실이 있다. 1호 갑실로는 2 000t급, 2호 갑실로는 50 000t급, 3호 갑실로는 20 000t급 배들이 나들 수 있다. 갑실의 년간 총 짐통과 능력은 4 500만t이다. 1호 갑실 상하류부에는 각각 250m의 부두가 있다. 갑실 우의 회전다리에는 기차길과 자동차길, 걸음길

이 있다.

미림갑문과 봉화갑문은 평양으로 흐르는 대동강을 막아 건설한 갑문들이다. 주체 69(1980)년 7월에 준공된 미림갑문은 언제, 갑문, 수력발전소, 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제, 갑문, 갑실, 고기길 등으로 구성된 봉화갑문은 주체 72(1983)년 4월에 준공되었다. 미림갑문에서 봉화갑문까지의 구간은 저수지로 되어 있다.

미림갑문언제의 상류 남강 합수목은 물면이 넓고 잔잔하여 해양체 육훈련장으로 리용되고 있으며 주변의 자연 풍치와도 잘 어울린다.

봉화갑문 저수지로는 비류강이 흘러들며 류역면적은 7766km²이다. 갑문에 설치된 너비 1.6m, 높이 1.3m의 고기길로는 물고기들이 자유로이 나들고 있다. 봉화갑문은 주변 풍치와도 잘 어울린다.

평안남도 순천시를 흐르는 대동강을 가로막아 건설한 순천갑문은 주체 75(1986)년 10월에 준공되었다. 순천갑문은 언제, 갑실, 발전소, 다리 및 고기길로 이루어졌다. 순천갑문이 건설됨으로써 이 지구의 교통 운수가 더욱 편리하게 되고 공업 용수, 생활 용수, 관개 용수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 풍치도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게 되었다.

성천갑문은 평안남도 평성시와 성천군 사이의 대동강을 가

미림갑문

로 막아 건설한 갑문이다. 대동강의 발원지로부터 290km 떨어져 있는 이 갑문은 주체 76(1987)년 3월에 준공되었다.

갑문 저수지로는 금천강과 장성강의 물이 흘러든다. 성천갑문은 언제, 갑문, 다리 및 고기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갑문 지점에서 류역면적은 5 533km²이다. 언제우에는 평성시와 성천군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

글 본사기자 김대철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서해갑문



조선의 특산

송이버섯



우리 나라의 특산물 가운데는 송이버섯도 있다. 송이버섯은 양강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일부 높은 지대를 내놓은 모든 지역의 소나무숲 지대에 퍼져 있으며 특히 양덕, 고성, 영광, 부령지방에 비교적 많다.

버섯갓은 어릴 때에는 둥글다가 자라면서 편평하게 퍼지며 직경은 8~20cm이다. 결면은 연한 노란 밤색 혹은 진한 밤색이고 가운데 부분은 더 진한 색을 띠며 섬유모양의 비늘이 덮여 있다.

변두리는 안쪽으로 말리며 어릴 때에는 연한색의 얇은 갓막에 의하여 버섯대의 웃부분과 붙어 있다. 버섯살은 두텁고 흰색이며 단단하고 특수한 향기를 낸다.

송이버섯은 소나무숲지대라고 하여 아무 곳에나 다 돋지 않는다. 많이 돋는 숲지는 화강암, 석영반암, 석영조면암, 사암, 규암 등을 기본으로 하는 숲지대이며 석회암, 응회암, 현무암, 조면암의 소나무숲지대에는 돋지 않는다.

산중턱 이상의 돌이 군데군데 있는 곳, 땅걸면 층이 얕고 군데군데 흠이 패인 곳에 돋는다.

송이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을 비롯한 비타민 성분들이 많다.

좋은 향미제로 쓰이고 있는 송이버섯기름에는 아밀비닐카르비놀, 계피산, 옥페놀이 들어 있다. 송이버섯은 맛이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은 식료품으로서 여러 가지 볶음, 통조림 등을 만들어 먹으며 말리워 가루를 내서 양념감으로도 쓴다.

송이버섯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기에 좋은 영향을 주며 아픔을 멎게 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와 가래가 성할 때 쓰면 효과가 있다. 또한 항암제, 리뇨제로도 쓴다.

우리 나라의 송이버섯 가운데에서도 칠보산 송이버섯은 그 맛과 향기, 약효로 하여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 *

사화

을두지의 지혜

고구려 대무신왕(18년-44년) 때의 일이다. 뜻하지 않게 수만의 외적이 고구려의 국경을 넘어 침입해온다는 급보가 궁궐에 전해왔다.

왕은 곧 여러 신하들을 불러들여 외적을 막을 계책을 의논하였다.

왕이 꾀로써 적을 물리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으니 『싸움에 나선 적들이라면 이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기세도 등등할것이니 깊숙이 끌어들여다가 꾀로써 한 다음 지쳤을 때 치면 쉬이 물리칠수 있을것입니다.』라고 을두지가 대답하였다.

왕은 을두지의 계책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적을 국내에로 깊이 끌어들이는 한편 수도성을 굳게 지킬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놓게 하였다.

드디어 적들은 수도성에까지 달려들어 포위하고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여왔다.

고구려군은 수십일동안 공격을 막아내면서 적

들이 지치기를 기다렸으나 적들에게서 돌아가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도리어 성안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오래동안 방어전을 하다니니 군사들이 꾀로해지기 시작하였고 성안에 먹는 물이 떨어지게 되였다. 지어 왕궁의 틀안에 관상용으로 잉어를 기르던 뜬의 물마저 말라버려 몇마리 안되는 잉어까지 죽게 될 형편이였다.

정세가 어려워지자 왕은 을두지를 불렀다.

『지금 적이 지치기를 기다리다가 도리여 우리가 견디여내지 못할것 같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을두지는 조금도 난처해하거나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담대한 태도로 대답하였다.

『우린 제 집에 앉아 싸우는데도 이처럼 지치고 있는데 멀고 먼곳에서 달려와 남의 땅에서 싸우고 있는 적들이야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저 말라죽게 된 잉어 몇마리를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혼자서 능히 대적이 물러가게 하겠나이다.』

『잉어를?!』

『네. 지금 적들은 우리 성이 암석지대에 놓여

있다는것을 간파하고 오래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먹을 물이 말라 나중에 항복하리라는 한가지 기대를 걸고 저처럼 모질게 포위를 지탱하고 있나이다. 이제 제가 펄펄 뛰는 잉어를 안고 적진에 나타나면 적들은 그 한가닥의 기대마저 끊고 말것이니 어찌 더 싸우려 하겠나이까?』

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요구대로 하라고 하였다.

을두지가 펄펄 뛰는 잉어 몇마리에 맞 좋은 술을 적장에게 주면서 『우리 왕이 성밖을 내다보운 하다가 먼길에 고생하는 대장의 수고를 차마 보기 믿망하여 보내는것이니 인사로 받아주기 바라나이다.』라고 하였다.

적장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넋을 잃었다. 그날밤 그는 군사를 거두어 가지고 물러갔다.

고구려군사들이 이때를 타서 달아나는 적을 뒤쫓아가며 치니 적은 크게 패하여 살아간 인원이 절반도 되지 못하였다.

* * *

야화

잃어버린 화살과 모자

림경업이 의주 부윤으로 있던 1636년 4월 어느 날이였다.

림경업은 성수축공사정형을 돌아보다가 어느 한 성벽에서 성돌을 나르는 군사들의 일손을 한것 동안 도와주었다. 일을 끝내고 벗어놓았던 관복을 입으면서 활과 전통을 메려고 하는데 전통안의 화살이 훌렁거렸다. 림경업은 언제나 전통에 화살을 가득 채워가지고 다니는 습성이 있었다.

그런데 화살통이 훌렁거리는것이 아닌가. 그는 이상스러워 화살을 세여보았다. 화살 한대가 없었다.

(화살 한대가 어데 떨어졌을가?)

주변을 찾아보아도 없었다. 언제나 가득 넣고 다니는 화살이여서 사람의 손으로 뽑기 전에는 빠지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생각을 거듭하던 림경업에게는 한가지 짚이는

점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 성벽가까이에 기여들었던 적들의 작간이 틀림없으리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적의 흥계라는것을 간파한 림경업은 적을 보복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그날밤 강건너 적지대를 환히 훤들고 있는 날랜 군사를 뽑아서 임무를 주었다.

『너의 임무는 오늘밤중으로 강건너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의 모자를 훔쳐내오는것이다. 해낼수 있느냐?』

『할수 있나이다.』

그 군사는 그밤 강을 건너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적장의 모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림경업은 그 군사를 표창해주고 적장의 모자를 허리에 차고 성밖으로 나와 적들이 바라보이는 강변을 유유히 오르내리였다.

얼마 지나서 맞은켠 강가에 적장이 군졸들을 거느리고 나왔다. 림경업이 강변에 나왔다는 기별을 받고 나온것이 틀림없었다.

아니나다를가 적들속에서 한개의 화살이 날아와 림경업의 발앞에 떨어져꽂히였다.

그 화살은 분명 어제 잃어버린 화살이였다. 이 때 강건너 적측에서 적장이 소리쳤다.

『립장수, 그게 네 화살이 분명하지? 화살을 훔쳐도 모르고 있으니 머리를 베온들 알수 있을소냐? 하하 … 네놈 그런줄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라.』

림경업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호령하였다.

『이봐라, 그건 내가 너에게 할소리이다.』

림경업은 이미 데리고 나온 돌팔매질 잘하는 군사에게 자기 허리에 찼던 적장의 모자를 뽑아주었다.

군사는 강가에서 돌을 하나 주어서 모자에 넣어 강건너편 적장을 향해 힘껏 던졌다.

적장은 자기앞에 떨어진 모자를 보고 놀랐다.

『이제야 알겠느냐? 목을 잃지 않으려거든 조심해라!』

제 군모를 쥐고 이 말을 듣는 적장의 손은 떨렸다.

『파연 림경업은 소문난대로 무서운 장수로다. 화살을 훔쳐온줄 어이 알며 내 군모는 언제 가져갔던고…』

적장은 방금 그 누가 자기의 목을 베여갈것만 같아 겁에 질려 군졸을 몰고 강변에서 도망쳤다.

* * *

고조선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1)

- 전조선 -

일반적으로 정치구조는 해당 사회의 정치제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체계로서 그것은 정치 세력과 정치기구, 국가의 법을 비롯한 정치실현을 위한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다.

고조선은 단군에 의하여 B.C. 30세기 초엽에 세워져 B.C. 108년까지 존재한 우리 민족의 첫 고대국가였다. 고조선은 전조선, 후조선, 만조선으로 되여 있다.

전조선(B.C. 30세기 초-B.C. 15세기 중엽. 단군조선이라고도 한다.)의 정치적지배 세력은 임금과 후왕, 판료들을 비롯한 노예소유자계급이었다.

전조선에서는 임금이 국가의 최고통치자로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의 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중앙통치기구뿐 아니라 지방통치기구도 장악하고 전국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였다. 그는 나라의 중심지역에 대한 직접적 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주변지역에 대하여서는 후국제를 적용하고 후왕들을 통하여 광활한 령토와 주민전반에 대한 통치를 하였다.

전조선의 정치구조는 노예소유자 계급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판료기구와 법을 통하여 더 잘 알수 있다.

전조선에는 국가형성 초기부터 비교적 째인 중앙판료기구와 통치기구가 있었다.

국가형성 초기 중앙판료기구에서 기본은 8가(9가)제도였다.

가라는 말은 고대조선에서 귀한 사람, 큰 어른을 가리키는 존칭으로서 귀족층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였다. 8가는 원시사회때부터 전해오던 범, 말, 소, 개, 곱을 비롯한 신앙동물들과 결부된 중앙의 최고위관료들의 관직명으로서 호가, 마가, 우가, 응가, 응가, 학가, 로가, 구가가 있었다.

8가의 기능을 보면 호가는 중앙의 대신급판료들을 통솔하였고 마가는 임금의 명령을 아래에 전달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는 일을 총괄하였으며 응가는 군대를 통솔하고 군사에 관한 일을, 우가는 농사에 관한 일을, 응가는 범죄자를 적발, 처형하여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로가는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학가는 선과 악같은 사회도덕적문제나 관혼상제에 관한 일을 주관하였으며 구가는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맡아 처리하고 중앙에 올려보내는 공물 등을 담당관리하였다. 그후에 조세징수를 맡아보는 봉가가 더 설치되어 9가로 되었다.

이밖에도 벼슬이름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치산치수를 담당한 벼슬과 청동야금업, 질그릇 제조, 천낳이 등 각종 수공업부

문을 담당한 벼슬도 있었다. 귀족상층을 이루는 가들과 대신급판료들은 모여서 나라의 정책수립으로부터 형벌적용과 법률제정, 전쟁과 대외관계를 비롯한 주요정책적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도 하였다.

전조선은 중앙통치기구와 함께 나라의 확장된 전반지역들과 주민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할수 있는 지방통치체계

도 갖추고있었다.

전조선의 지방통치체계는 당시의 발전정도에 맞게 임금의 직접통치가 적용된 직할지와 간접통치형식의 후국, 속령 등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 그밑에 말단행정단위로서 각이한 규모의 교읍과 마을들이 총위를 이루고 종속체계를 갖추고있었다.

전조선의 지방통치체계에는 부수도제도도 있었다.

부수도는 교통운수나 통신수단이 발전하지 못한 당시의 조건에서 광활한 지역에 대한 통치를 보다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지역적통치거점으로서 수도인 왕검성 다음가는 지위에 있는 제2수도였다. 이 제도는 정치, 군사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그후 고구려와 밭해는 물론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고조선에는 8가의 하나인 응가가 전문적으로 형벌을 주관하였던것만큼 법집행의 기준으로 되는 판습법(불문법) 및 성문법들도 있었으며 바로 이러한 법례들에 기초하여 후조선 초기에 범금 8조와 같은 보다 발전된 국가법(형법)들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민족은 세계의 대부분 지역들이 원시적인 상태에 처하여있던 반만년전에 벌써 정연한 정치구조를 갖춘 전조선을 세움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국가시대, 문명시대에 들어서서 자기의 고유하고 우수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왔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유병호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끝장나야 한다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69년이 되여온다.

조선인민은 1945년 9월 8일 미국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기나긴 반세기이상 커다란 민족적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마치도 1945년 8월 15일 폐망한 일제의 《무장해제》를 위한것 인듯이 광고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미국은 조선의 절반땅이라도 차지할 목적으로 《실제적인 해결책》을 세우기 위한 모략을 꾸미였다.

남조선잡지 《신동아》는 《…38° 선확정은 쏘련군이 조선반도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이였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1945년 당시 조선은 련합국의 적국이 아니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15성상의 무장투쟁을 벌려 조선은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하였다.

그러나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선을 발판으로 아시아와 나아가서 전세계를 지배하는것이 목적인 미국으로서는 대일작전에 참가하였다라는 명목밑에 일제의 폐망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던것이다.

조선전쟁(1950년 6월-1953년 7월)을 도발한 미국은 전후에도 계속 남조선에 남아 무력을 더욱 증강하면서 전쟁연습책동에 광분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미국이 전후 남조선강점 미군을 《유엔의 결정》에 의한 《유엔군》으로 표방하면서 그의 철수를 회피하고있는것은 부당한것이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에도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가 규제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까지도 그것을 리행하지 않고있다.

조선과 국제사회가 이미 《유엔군사령부》를 하루빨리 해체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에 암적존재로 되고있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있으나 그들은 그것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다.

오히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가 미국남조선 《련합사령부》와 남조선강점 미군과 함께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느니, 《유엔군사령부》해체는 유엔으로서도 바라지 않는다는느니 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정세가 완화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완화되면 미국이 남조선에 왜 남아있는가 하는 국제적의문이 날로 커가기 때문에 그들은 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시키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에 있어 모험적인 시험전쟁, 핵예비전쟁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전쟁의 화근이다.

미국은 올해에도 《키 리졸브》, 《독수리》, 《맥스 썬더》를 비롯한 합동군사연습들을 진행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갔다.

전쟁계획들을 공공연히 내돌리고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대규모병력이 동원되어 핵전쟁화약내를 질게 풍기고있는 곳이 미군이 강점하고있는 남조선이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대세의 흐름에도 배치된다. 외국군대의 철수가 국제적주체로 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땅토완정을 존중할데 대한 세계의 요구가 높아지고있는 오늘날에 와서도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강화하고있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유익하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쟁발원지가 없어지게 될것이다.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어있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려가야 한다.

본사기자



뿌리깊은 침략정책

조선반도의 정세는 의연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미국은 항상 그려하듯 올해에도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도발》과 《위협》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었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아시아행각에 나선 길에서까지 북조선의 핵계획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조선의 도발》에 대한 국제공조체제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지난 4월 남조선에 갔을 때에는 피뢰집권자인 박근혜와 함께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니, 《강한 조치》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에 《B-52》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방대한 무력과 장비를 끌어다놓고 남조선피뢰들과 함께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련속 벌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바로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연원을 두고 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백수십년 동안 조선에 대한 군사적 침략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왔다.

미국은 19세기 전반기 무장공격을 전제로 하는 《포함외교》를 제창하면서 아시아나라들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특히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간파한 미국은 조선의 《문호개방》을 대조선정책의 기본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책동하였다. 미국은 1866년 침략선 《셔먼》호

를 조선침략의 선견대로 내세운 후 련이어 《쉐난도아》호, 《차이나》호 등을 들이밀었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항전으로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그후에는 일본의 조선침략야망을 로골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1905년에는 일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협력하고 조선에 대한 《보호통치》를 인정하는 《가쓰라-타프트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의 지지와 비호밑에 일제는 조선을 수십년동안이나 강점하고 조선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다.

일제가 패망한 후 미국은 조선침략의 길에 공공연히 나섰다. 1945년 9월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만행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1950년 6월 25일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한 미제는 3년간의 전쟁에 방대한 무력과 전쟁장비, 일본군과 남조선피뢰군을 포함한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끝끝내 조선인민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미국은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그후에도 끊임없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하였다. 미국의 군사적도발행위는 전쟁의 포성이 몇은 때로부터 1999년 까지의 기간에만도 무려 15만여건에 달한다. 조선인민군에 의해 참패를 당한 1960년대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

기사건 그리고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 등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미국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써온 경제적 고립과 심리전의 각종 수법들 그리고 작전계획 등 까지 따진다면 그 수는 이루 다헤아릴 수 없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들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1950년대에 벌써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발단시킨 미국은 1990년대까지 1 720여개의 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미국에 의해 남조선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핵화약고, 핵전쟁발원지로 되었다.

그에 기초하여 미국은 《방어》와 《년례적》이라는 간판 밑에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에서 《팀 스피리트》,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포커스 렌즈》 등 각종 북침핵전쟁연습들을 거듭 벌려놓았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책동은 온갖 거짓과 날조, 위선으로 분칠하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 침략정책을 송두리채 가서내는 것은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본사기자 조선일

고화

어부

하루의 낚시
질을 마친 텁석
부리어부가 갈
대우거진 강변
길로 돌아오고
있다. 오른쪽
어깨에는 낚시
대를 얹고 왼
손에는 고기꿰
미를 들었는데
퍼그나 맥없
는 걸음이다.
삿갓밑으로 보
이는 얼굴에는
초연한 표정이
짙어서 나이보
다 훨씬 더 늙
어보이게 하지
만 별에 그을
은 팔과 다리
에는 로동에서
단련된 억센
기운이 넘치고
있다.

이 그림을
그린 리승효(자 : 백달)는
대대로 그림재
주가 뛰여난 집안에서 태여난 인민적인 화가였다. 아버지는 유명한 리상좌(1465년-?)이고 동생 역시 산수화와 화상을 잘 그린 리홍효이며 아들은 인물화와 산수화의 능수이고 전서체 글씨를 잘 쓴 리정이다.



당시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의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한 이 그림은 지금 남아있는 리승효의 작품이 매우 찾아보기 힘든 조건에서 귀중한 회화유산의 하나로 되고 있다.

* * *



금강산의 별금강 본사기자 최원철

절승경계로 세상에 이름난 금강산의 천불동구역에 있는 별금강,
기암괴석과 푸른 숲, 수정같이 맑은 물이 차고넘치는 담소가 있는
별금강에 아름다운 금강산의 경치가 다 담겨져있는듯싶다.

ISSN 1727-9062



9 771727 90600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1-482140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